

한국인문사회질학회 2024년 상반기 학술대회

# 사회적 약자의 삶과 경험에 대한 융합인문학적 접근

2024. 6. 14(금) 14:00~18:0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A108호

## 제1부 학술대회

### 개회선언 및 인사말

· 송시형 (한국인문사회질학회 회장)

### 휴식

좌장 : 송시형 (한국인문사회질학회 회장)

<주제발표1> 중년기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소고 .....05

· 발표 : 강미희 (더행복한상담연구소) / 토론 : 박지선 (우송대학교)

### 휴식

<주제발표2>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자기평가방법 연구 .....17

· 발표 : 박범기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 토론 : 정진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

### 휴식

<자유발표> 장애 진단명에 대한 고찰 : 장애 진단명의 오류와 그 대안 .....41

· 발표 : 강은희 (강은희 사회성발달연구소) / 토론 : 조형범 (이음 크리에이티브)

### 휴식

### 종합토론 및 폐회 선언

· 송시형 (한국인문사회질학회 회장)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55



한국인문사회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Humanities & Social Quality



## 제1부 학술대회

---

### 논문발표

# 사회적 약자의 삶과 경험에 대한 융합인문학적 접근

#### [주제발표1]

중년기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소고

- 강미희(더행복한상담연구소)

#### [주제발표2]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자기평가방법 연구

- 박범기(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 [자유발표]

장애 진단명에 대한 고찰 : 장애 진단명의 오류와 그 대안

- 강은희(강은희 사회성발달연구소)



# 중년기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소고

강 미 희

(더행복한상담연구소 대표)

## 중년기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소고

발표 : 강미희(더행복한상담연구소)

### 차례

1. 코로나19 이후 한국인의 삶의 질 변화 양상
2. 중년기 여성의 특징
  - 1) 중년기
  - 2) 중년기 특징
  - 3) 중년기 여성의 특징
  - 4) 중년기 여성의 문제점
3. 중년기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 1. 코로나19 이후 한국인의 삶의 질 변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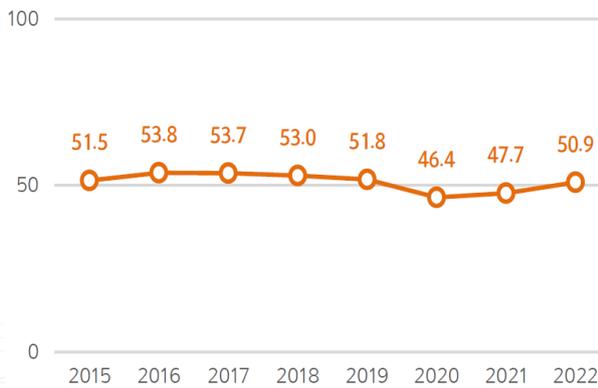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국민 삶의 질 2023」

- 사회적 고립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자원봉사 참여율, 일자리만족도, 소득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등 영역별 만족도 지표들이 개선
- 독거노인 비율 및 가구순자산 지표는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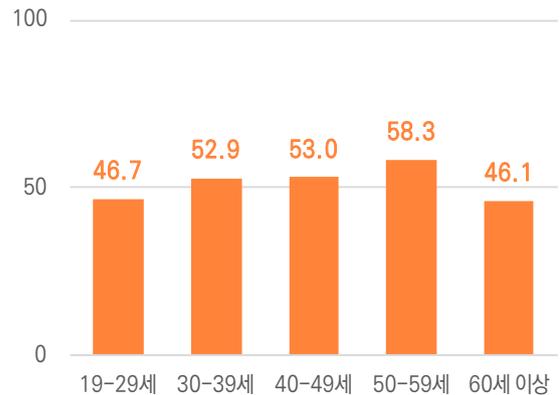
# 1. 코로나19 이후 한국인의 삶의 질 변화 양상

< 사회단체 참여율(2015~2022년) >



출처 : 통계청, 「국민 삶의 질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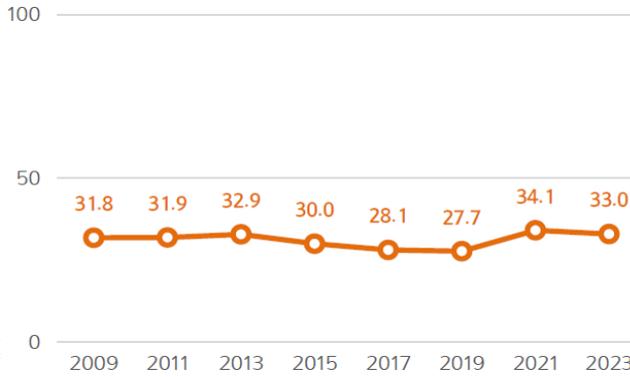
< 연령별 사회단체 참여율 (2022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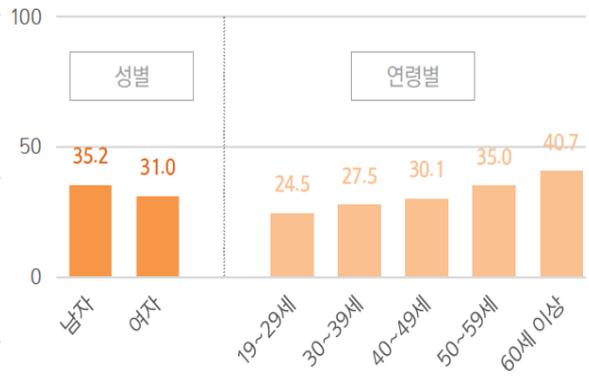
- 사회단체 참여율은 '19년 51.8%, '20년 46.4%로 대폭 감소 후 '21년 47.7%, '22년 50.9%로 증가
- 연령별 참여율은 50대가 58.3%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이 가장 낮음

# 1. 코로나19 이후 한국인의 삶의 질 변화 양상

< 사회적 고립도(2009~2023년) >



< 성·연령별 사회적 고립도(2023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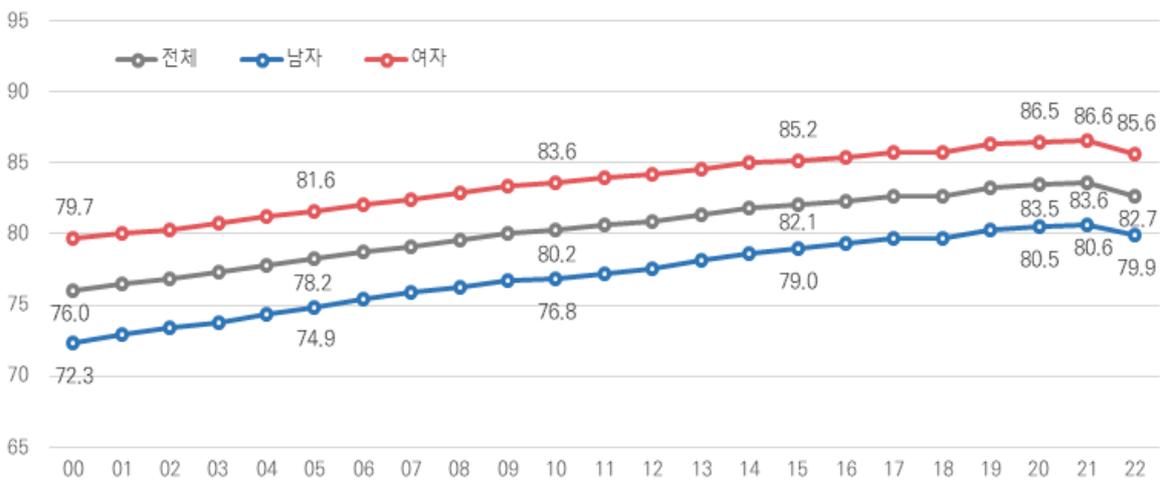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국민 삶의 질 2023」

- 사회적 고립도는 '21년 34.1%로 급증하였다 '23년 33.0%로 낮아졌으나 '19년 27.7%보다 높음
- 남자(35.2%)가 여자 31.0%보다 사회적 고립도가 높음
-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고립도는 높아져 60세 이상이 40.7%로 가장 높음

# 1. 코로나19 이후 한국인의 삶의 질 변화 양상

< 기대수명 (2000~2022년) >



출처 : 통계청, 「국민 삶의 질 2023」

# 1. 코로나19 이후 한국인의 삶의 질 변화 양상

-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지표임
-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가 증가하여 '22년 82.7세로 전년대비 0.9세 감소함
- 다른 나라도 기대수명 감소함
  - \* 기대수명('19년→'20년)의 세계적 변화 : 미국(78.8세→77.0세), 영국(81.4세→80.4세), 스페인(84.0세→82.4세), 스위스(84.0세→83.1세), 이탈리아(83.6세→82.3세), 프랑스(83.0세→82.3세), 스웨덴(83.2세→82.4세)

# 1. 코로나19 이후 한국인의 삶의 질 변화 양상

< 연령별 1인당 국내 관광여행일수(2019~2022년)>

	여행 일수	연령별 여행일수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19년	10.01	7.72	11.51	12.10	10.89	10.55	8.15	6.08
2020년	5.81	3.32	7.58	8.21	6.93	5.81	4.20	1.77
2021년	6.58	3.82	8.72	9.07	7.81	6.78	4.91	1.92
2022년	8.29	5.20	10.39	10.96	9.77	8.89	6.61	3.20

출처 : 통계청, 「국민 삶의 질 2023」

- 1인당 여행일수(국내)는 증가 추세이나, 코로나19 이전('19 10.01일)에 못 미침
- 70세 이상은 3.2일로 다른 연령대와 차이가 크고,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가장 더딤

## 2. 중년기 여성의 특징

### 1) 중년기

- 중년기를 규정하는 특정 연령대가 없음
- 일반적으로 청년기 이후부터 노년기 이전을 의미함
- 40~50대 연령
- 최근 신체나이가 젊어지고, 노인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논의되고 있어 60대까지도 중년기로 보기도 함

### 2) 중년기의 특징

-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크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인생의 완숙기
- 여러 측면에서 책임과 역할, 권한이 큰 시기
-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로 신체 및 생물학적 감퇴로 인한 변화를 느끼는 시기
- 자아에 대한 재정의가 이루어지는 시기
- 인생의 황금기이자 노년기라는 위험이 공존하는 위기의 시기

## 2. 중년기 여성의 특징

### 3) 중년기 여성의 특징

- 중년 여성의 변화는 신체적, 심리적, 인간관계적 측면 등에서 다차원적으로 나타남
- 현재 중년기 여성 대다수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유함
- 적극적으로 노년기를 준비하는 세대
- 소히 '아줌마'라는 인식으로 인해 역세고 호전적인 느낌이며, 중년 남성보다 부정적 이미지를 가짐
- 가사 및 육아의 감소로 인해 여가시간이 증가함
- 중년 여성이 중년 남성보다 급격한 노화와 갱년기를 경험함
- 폐경과 노화 등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함
- 어머니로서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이 급격히 감소함
- 최근 신체나이가 젊어지고, 노인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논의되고 있어 60대까지도 중년기로 봄

## 2. 중년기 여성의 특징

### 4) 중년기 여성의 문제점

-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관상동맥질환 및 골다공증 등이 다수 발생함
-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함
- 몸무게의 증가 및 체형 등의 신체적 변화가 불안감을 초래함
- 신체적 변화로 인해 자신감 및 자존심 부족 등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불안과 우울 등의 정서적 위기를 경험함
-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주부의 역할과 과업수행이 지적 능력을 상실하도록 만들었다는 부정적 사고를 형성함
- 자기발전의 기회를 상실했다는 감정이 유발됨
- 이런 부정적 사고로 인해 자아정체감의 혼란을 경험함
- 삶의 구심점을 한순간 빼앗긴 것 같은 공허함을 가짐
- 빈 등지 증후군 유발함

## 3. 중년기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 1) 지역사회 기관

- 중년기 여성에 대한 관심 확대
-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중년기 여성의 불안정한 정서의 안정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
- 중년기 여성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3. 중년기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 2) 지역사회 대학

##### ① 중년기 여성

- 국가의 평생교육 확대 정책
- 제 2, 제 3의 직업에 대한 욕구증가
-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한 배움의 욕구 확장
- 배움에 대한 높은 열정으로 재교육을 통해 중년기 이후 삶의 다양한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

=> 중년기 여성의 대학진학률 급증

##### ② 지역사회 대학

- 학년기 학생 수가 급감하여 정규 신입생 조달이 어려움
- 학생수 급감의 문제는 대학 재정의 문제로 이어짐
- =>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혹은 성인학습이 증가함

### 3. 중년기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 3) 지역 기반 웹커뮤니티 - '당근'

- 동일 지역으로 접근성이 증가함
- 동일 연령대라는 유사성으로 인해 동년배 의식이 형성됨
- 사소한 중고거래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거리감이 거의 없음
-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유로 인해 웹커뮤니티 다른 연령 대비 네트워크가 용이함
- 중년기 여성들도 능동적으로 사회 활동 참여 가능함
- 가족 및 직장이 아닌 이웃사촌, 친구의 관계로 확장됨

## 참고도서

- 강혜정, 이공희(2017), 고령화 사회의 노인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한국생활학회지.
- 김경래(2019), 신중년의 노후 인식 실태와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 서정은, 서호정, 박수정(2024), 신중년 여성의 커뮤니티 참여 의의와 제약요인의 탐색, 한국여성체육학회지.
- 안현용(2023), 대학 소재지에 따른 성인학습자 전담 대학 특성 및 학업 성과 차이 연구,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 전양진(2019), 신중년 소비자의 외모와 여가 활동, 삶의 질 인식에 관한 연구, 복식.
- 전호선, 주현정(2019), 중년직장인의 건강상태, 노후준비가 노후불안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 정윤주, 한면화(2021), 중년기여성의 갱년기와 삶의 질 관계연구: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선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경영학회지.
- 진관훈(2012), 사회적 자본이 지역사회 복지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 최윤정, 이미경, 김은아, 서은해(2018), 지역사회 기반 재가노인 우울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한국지역사회복지학.
- 통계청(2023), 「국민 삶의 질 2023」.

[토론문]

## 「중년기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소고」에 대한 토론

박 지 선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 한국 사회 중년여성의 삶의 특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발표문을 잘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토론자 본인도 연령 구분상 중년여성 범주에 속해 있어 주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연구논문이 아닌 ppt 자료를 보고, 한정된 내용에 대한 토론자의 이해와 상상을 바탕으로 작성하다 보니 발제자의 연구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작성하는 것 같아 우려됩니다. 이에 궁금증을 중심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 발제자께서는 중년여성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과 팬데믹으로 인해 그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고, 중년여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에 대해 전망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역할에 대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주체를 세분화하여 흥미로운 아이디어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 인간의 생애주기 상 중년기는 다른 발달주기와 비교했을 때 복지정책 대상에 있어서는 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노년기와 관련해서는 해당 주기를 대상으로 눈에 띄는 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만, (성별을 넘어서) 중년기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인식되거나 체감되는 정책과 서비스를 찾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년기는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중추적인 과업(윗세대와 아랫세대 돌봄, 사회의 허리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

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정책의 수혜자보다는 기여자 관점에 치중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사회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중년기의 사회에 대한 기여자 역할의 중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개인 생활자 측면에서 다음 삶에 대한 계획과 전망이 어려운 상황은 다음 생애주기를 안전하게 맞이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중년기는 개인에 따른 편차가 상당히 큰 시기라고도 생각됩니다. 경제/사회적, 가정적 상황에서 볼 때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청년기의 어려움으로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중년기 역시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린다 그래튼은 100세 시대를 전망하며 이제는 교육-일-은퇴의 3단계 삶이 아닌 다단계(교육-일-교육-은퇴-교육-일 등등)의 삶을 살라고 강조합니다. 삶의 방식은 노년기에 이르러서 갑자기 바뀔 수 없기에 이전 단계인 중년기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린다 그래튼은 금융자산 못지않게 무형자산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린다 그래튼은 무형자산을 생산자산, 활력자산, 변형자산으로 표현하는데 이러한 자산 형성은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정책 단위보다는 개인에게 더 밀착되어 있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지역 안에서 개인의 일 수행/재능이나 역량 발산(생산자산), 건강유지 및 관계형성(활력자산), 평생학습/교육(변형자산) 등은 지역단위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질의 다양한 개념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유무형의 자산이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볼 때, 한국 사회의 중년여성 중 하나인 토론자 본인은 삶의 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지지받고, 해소할 수는 있는 것인지 사실 모호합니다. 연령상으로는 약 20년 후로 다가온 노년기를 상상해보면, 금융자산도 준비가 늦은 상황에서 본인에게는 과연 무형자산을 순조롭게 준비해 갈 수 있는지도 막막해집니다.

○ 발표문을 읽으며 들었던 짧은 생각에 이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 첫째, 이번 발제에서는 핵심어가 몇 가지 등장합니다. 중년여성, 삶의 질, 지역사회인데요. 각 핵심어에 대해 발제자께서 정의하신 개념과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 세 가지 개념은 사람에 따라 매우 상대적이

고, 주관적으로 이해할 소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 둘째, 대상 측면에서 중년기이면서 여성으로 한정했습니다. 성별 측면에서 여성으로 한정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 셋째,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이나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발제자께서 지역사회역의 역할을 강조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 이번 발제 주제는 해당 주제 당사자로서 되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흥미로운 발제를 해 주신 점에 감사를 표하며 부족한 토론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청소년의 학교폭력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자기평가방법 연구

박범기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2024\_상반기) 한국인문사회질학회 학술대회 발제

-청소년의 학교폭력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자기평가방법 연구-

박범기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아동청소년상담복지사과정 주임교수)

## I. 서론

### 연구의 필요성

학교폭력은 어느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만 발생하기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라는 점에서 일종의 보편성을 보임  
- 한국은 1995년 김대현군 자살사건을 기점으로 밀양 여중생성폭력 사건, 대구중학생 자살 사건이 우리나라 학교폭력 사건의 초기였다고 할 수 있음. 그 이후 2011년 대구중학생 사건, 2014년 원주 중학생 칼부림 사건, 2017년 서울 송의초등학교 수련회 집단폭행사건,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천안 여중생 폭행사건, 2018년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2020년 인천영종고등학교 집단폭행사건 등이 발생하는 형편임.-> 한국의 학교폭력 사건은 집단화, 저연령화 및 사이버 학폭증가의 특성을 보이면서도 그 수법이나 모습도 총폭화, 저연령화, 지속화 양상을 보이는 추세로 사회가 감당해야 되는 비용은 증가(곽대경 외, 2007)

- 이런 상황에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처를 위해 국가와 관련기관들이 다양한 제도 및 교육, 상담 등을 시행했지만 학폭피해자는 전체 학생의 3.8%에 해당(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5)되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 피해의 후유증을 고스란히 겪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피해의 치명성이나 지속성은 거의 영구적임(Copland, 2013),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5)은 국내의 학교폭력피해자 중 41.8%가 자살시도를 결심해 행동화 할 만큼 학교폭력의 피해는 치유하기 힘들다고 주장

- 이에 따라 한국에서 학폭과 관련되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일련의 흐름을 보이고 있음. 첫째, 연구의 대부분이 양적연구이며 대상별 연구가 집중적으로 수행되어 오고 있음. 둘째, 개별적 대상 연구에서 벗어나 대상자들이 속한 집단의 역동적 관점에서 대상자들의 관계를 보려는 흐름이 있음. 셋째는 학교폭력의 실태와 행정·사법적 논의를 담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 학교폭력은 관념상에서 이루어지는 폭력x 일상적인 학교생활에서 실존적으로 벌어지는 집단역동적 맥락을 가진 폭력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학교폭력의 현상을 드러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함

- 본 연구는 이런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학교폭력의 실체를 밝힐 현실적 필요성에서 가해, 피해, 방관 경험을 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특히 본 연구자가 보고자 한 부분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학급이나 학교공간에서의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인데, 그 이면에 복합적이고 깊이있는 의미성이 녹아있기 때문임, 바로 이 부분이 학교폭력의 본질을 성찰할 수 있는 지점이라 할 수 있음(정수복, 1996)

-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선정하여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현상(Phenomenology)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려 함. 특히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 현상학적 자기평가방법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이유는 현상학적 방법은 일상생활의 본질을 밝히는 것을 목적(Giorgi, 2004)으로 하며 현상학적 자기평가방법은 이러한 본질을 잘 드러내는 방법론이라 사료되기 때문임.

-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자기평가방법 연구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심층적이고 본질적인 결과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의미있는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통찰을 제공하리라 기대함



# I. 서론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밝히는데 있음.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음.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학교폭력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통해 어떻게 학교폭력이 구현되는지를 보여줌으로 학교폭력의 성격과 그 본질을 드러내 보려 함.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이라는 거시구조를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의 모습에서 보려함.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적 실천이나 정책의 방향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며 일선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되는 일들을 하는 실천현장가들에게 매뉴얼구성이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학교폭력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통합적이고 넓은 시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함.



# II. 이론적 배경 및 문헌고찰

##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의 개념과 실태

-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은 단일화x, 학자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상황임. Tiersch(1995)는 폭력을 물리적, 심리적, 구조적 영역으로 나누어 개념화

- Olweus(1993)는 학교와 연관하여 일어나는 폭력행위로 학생이 다른 학생이나 또래집단에 의해 계속적인 신체, 물리적 폭력을 당하고 그 외 협박, 욕설, 집단 따돌림등의 심리, 언어폭력행위등을 겪는 것이라 함. 한국 청소년개발원(2012)은 청소년 폭력은 청소년기라는 특정한 환경적 성장과정에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이나 사물과 관계없이 힘의 균형이 깨어진 불평등 상황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을 의미한다고 함.

- 학교폭력에 대한 일관된 개념x-> 학교폭력 장소 및 주체등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들 존재.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규정은 대체적으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폭법에서 규정한 정의를 따름

유형	예시 상황
신체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해나 폭행에 속하는 행위로 신체 손이나 발로 폭행하는 등의 행위</li> <li>- 집단행위에 속하는 행위로 일정한 장소에서 나오는 것을 저지하는 행위</li> <li>-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일정한 장소로 데려가는 약취행위</li> <li>-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 특정 장소로 데리고 가는 유인행위</li> <li>- 장난이라고 하면서 고집거리 때리는 등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li> </ul>
언어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예훼손에 속하는 행위로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에 속하는 비경, 성적등에 대해 구제적인 말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내용을 글, 음성, 문자, 인터넷망이나 SNS 등에 퍼뜨리는 행위</li> <li>- 모욕행위에 속하는 행위로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속이나 외모를 칭찬을 반복,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글, 음성, 문자, 인터넷망이나 SNS 등에 퍼뜨리는 행위</li> <li>- 협박행위에 속하는 행위로 '가만두지 않겠다' 등 상대방의 신체를 위해 가할 수 있다는 듯한 언행이나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등을 발송 하는 행위</li> </ul>

유형	예시 상황
금품갈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방에게 돈을 갈취하려고 시키는 행위</li> <li>-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물품을 당겨뜨리거나 손괴하는 행위</li> <li>- 의류나 문구물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가져가놓고 돌려주지 않는 행위</li> </ul>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은다고 협박하고 돈을 달라고 하는 행위</li> <li>- 타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로 속칭 '서물'이라고도 부를 예를 들어 뽕 서물, 과제 대행 서물, 게임 대행 서물, 와이파이 서물등이 있음</li> <li>-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저해하거나 하지않아도 할 일을 하게 하는 행위</li> <li>- 다른 학생과 어울리거나 교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li> </ul>
의도방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상대하지 않는 행위</li> </ul>
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행과 협박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도록 신적적으로 점책하는 행위</li> <li>- 상대방이 성적 만족감이나 수치감을 느끼도록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행위</li> </ul>

출처: 2023년도 개정판 학교폭력 가이드북(2023: 7) 재구성함

## II. 이론적 배경 및 문헌고찰

###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의 개념과 실태

. 미국, 영국, 호주, 독일의 학교폭력 실태는 다음과 같음. 우선 미국은 1992년부터 학생이 총기를 사용해 상대방을 죽이는 살인사건등이 학교에서 발생하며 학교폭력에 대해 정부 및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옴. 그 이후 상당기간 미국의 학교폭력은 살인, 성폭행, 강도등의 범죄양상을 보임. 이에 미국의 주정부 및 연방정부는 1990년대부터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학교폭력에 대한 기본정책으로 유지함. 다소 최근 실태조사라고 볼 수 있는 2019년 미국 고등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실태에 따르면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괴롭힘, 무기위협 및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Adhia et al., 2022)

. 영국은 2015년 학교폭력 현황에 대해 PISA가 조사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통적인 학교폭력 수준이 프랑스, 독일, 핀란드 등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높은 편임. 전통적 학교폭력인 신체적 폭력, 놀림과 괴롭힘(bullying), 사이버 폭력이 두드러지며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성적 소수자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한유경 외, 2020)

. 호주는 2016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12세~13세 아동들 중 70% 정도는 최소 1회 이상 놀림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고(Zhu & Zhang, 2022). 이런 괴롭힘을 당한 학생들의 경우 심리정서적 고통 및 문제행동, 약물중독, 자살시도 등의 위험행동이 증가하고 있다(Thomas et al., 2017)는 연구 결과까지 나온 상황-> 이를 바탕으로 호주정부 및 유관기관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된다는 분위기가 호주에서 강조되는 실태임.

. 독일은 학교형태가 인문고(Gymnasium), 실업학교(Realschule),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로 나누어져 있고 이에 따라 상이한 학교폭력 유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됨. 1993년부터 독일은 학교폭력 문제에 주목했는데 당시 신체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 비율은 하우프트슐레가 가장 높았고,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대부분 학교폭력에 가담한것으로 밝혀짐. 그 후 2015년 PISA에 의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독일은 신체폭력이나 괴롭힘같은 전통적 학교폭력 유형은 감소하고 있으며 사이버폭력은 새로운 학교폭력 유형으로 대두되고 있음. 특이한 것은 독일이 동유럽 이민자 비율이 높은 나라이며 2015년 시리아 난민 유입등으로 이민자들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와 관련해 학교폭력의 발생률이 독일의 이주민 밀집지역에서 높다고 보고됨(한유경 외, 2020)



## II. 이론적 배경 및 문헌고찰

###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의 개념과 실태

.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발생 실태를 정시영(2018)은 크게 4시기로 구분. 즉 1기를 태동기(1995~2005), 2기를 점증기(2006~2010), 3기를 고조기(2011~2012), 4기를 감소기(2013~2017)로 나누었으며 각 시기는 뚜렷한 실태별 특징을 보임.

. 제1기 학교폭력 실태: 1995년에서 2005년으로 태동기시기임. 2006년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실태조사를 하기전까지 개별 언론이나 연구자들이 간헐적으로 조사한 자료에 근거해 당시 학교폭력 실태를 추정. 1990년 초반 국민일보(1990), 서울신문(1990), 부산일보(1993)등에서 어린이 범죄, 문교부가 시행하는 주 1회 준법교육 내용, 학교주변의 불량배들의 실태등을 조금씩 보도 그 후 김준호 외(1996)가 서울소재 남녀 중고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남녀 청소년들의 차이등에 대해 연구. 이 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 성적 피해, 금품갈취, 괴롭힘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며 여자청소년보다 남자청소년들 사이에서 학교폭력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 줌. 2004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검찰청 및 청소년보호위원회등이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시행함.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협박이나 금품갈취 피해가 뚜렷했고 학교 밖에서 이런 학교폭력이 이루어졌다고 밝힘.



김준호 고려대 사회학교수



## II. 이론적 배경 및 문헌고찰

###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의 개념과 실태

제2기 학교폭력 실태 :2006년에서 2010년까지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매년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당시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음.

이 시기의 학교폭력 실태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표로 제시할 수 있음.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청소년학교폭력예방재단 조사결과에 따른 학교폭력 실태

연도	피해경험율	가해경험율	심각인식율	피해유형의 빈도순	학교폭력 발생장소
2006	17.3%	12.8%	X	금품<신체<언어	학교근처<교실
2007	16.2%	15.2%	X	금품<언어<신체	운동장등<교실
2008	10.5%	8.5%	28.6%	금품<언어<신체	주로 학교내
2009	9.4%	12.4%	32.8%	X	주로 학교내
2010	11.8%	11.4%	38.1%	협박<언어<신체	X

출처 :정시영(2018: 75) 재구성함

## II. 이론적 배경 및 문헌고찰

###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의 개념과 실태

제3기 학교폭력 실태: 2011년에서 2012년까지로 학교폭력 고조기에 해당함. 당시의 학교폭력 실태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음.

이 시기의 학교폭력 실태를 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표로 나타낼 수 있음.

>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청소년학교폭력예방재단 및 한국교육개발원 조사결과에 따른 학교폭력 실태

연도	피해경험율	자살생각 및 최초 학폭경험 시기	가해경험율	심각인식율	피해유형의 빈도순	학교폭력 발생장소
2011(청예단)	18.3%	31.4%, 초등4-6학년	15.7%	41.7%	X	X
2012(청예단)	12.0%	44.7%, X	12.6%	40.8%	X	주로 학교교실
2012 상반기(교육개발원)	12.3%		X	X	X	X
2012 하반기(교육개발원)	8.5%		4.1%	X	따돌림 <금품<언어	X

출처 :정시영(2018: 81) 재구성함

## II. 이론적 배경 및 문헌고찰

###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의 개념과 실태

>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청소년학교폭력예방재단 및 한국교육개발원 조사결과에 따른 학교폭력 실태

- 제4기 학교폭력 실태는 2013년에서 2017년까지로 3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폭력 예방재단과 한국교육개발원의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당시의 실태를 알 수 있음.

-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우리나라 학교폭력 실태를 표로 정리할 수 있음.

연도	피해 경험율	자살생각 및 최초 학폭경험 시기	가해경험율	심각인식율	피해유형의 빈도순	학교폭력 발생장소
2013(청예단)	6.1%	42.1% 초등학교(전체피해자의 75%)	X	X	협박<신체<언어	주로 교실
2014(청예단)	X	X 초등학교(전체피해자의 80%)	X	X	따돌림<괴롭힘<언어	주로 교실
2015(청예단)	4.6%	X 초등학교(전체피해자의 81%)	2.3%	X	신체<집단<언어	X
2016(청예단)	6.4%	X, X	3.0%	X	따돌림<신체<언어	X
2013 1차(교육개발원)	2.2%	X, X	X	X	X	X
2013 2차(교육개발원)	1.9%	X, X	1.6%	X	사이버<언어<따돌림	주로 학교

2014 1차(교육개발원)	1.4%	X, X	0.6%	X	폭행<따돌림<언어	주로 학교
2014 2차(교육개발원)	1.2%	X, X	0.6%	X	폭행<따돌림<언어	주로 학교
2015 1차(교육개발원)	1.0%	X, X	X	X	폭행<따돌림<언어	X
2015 2차(교육개발원)	0.9%	X, X	0.4%	X	폭행<따돌림<언어	주로 학교
2016 1차(교육개발원)	0.9%	X, X	0.4%	X	폭행<따돌림<언어	주로 학교
2016 2차(교육개발원)	0.8%	X, X	0.3%	X	폭행<따돌림<언어	주로 학교
2017 1차(교육개발원)	0.9%	X, X	0.3%	X	폭행<따돌림<언어	주로 학교

출처 : 경시영(2018: 93,94) 재구성함

## II. 이론적 배경 및 문헌고찰

###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의 원인과 관련 이론들

· 학교폭력의 원인: 개인, 가정, 학교, 사회적 영역

· 학교폭력의 이론: 심리학적 원인론이 있으며 열등감이론, 좌절공격이론 및 정신분석이론이 여기에 포함됨.

· 학교폭력의 이론: 사회학적 원인론이 있으며 사회학습이론, 사회통제이론, 아노미이론, 하위문화이론, 낙인이론, 생활양식 노출이론이 여기에 포함됨.

### 가정·학교·사회 곳곳에서 폭력성 자극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알아야 한다.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특징과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교육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상담전문교사가 학교폭력의 원인과 예방법을 들려준다.



## II. 이론적 배경 및 문헌고찰

###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 정책과 관련 현황

학교폭력과 관련된 주요 4개국의 관련법 및 이에 근거한 정책

	영국	미국	독일	노르웨이	
학교폭력 관련 법	교육법(1996), 범죄와 무질서에 관한 법률(1998), 인권법(1998), 학교기준 및 구조법(1998), 교육 및 감사법(2006), 교육규정(2014)	안전한 학교 개선법(2013), 괴롭힘 방지법(관련 주 법)	학교법, 형법, 사회법 VII 아동과 청소년 지원법	교육법, 행정법	
주요정책의 특징	-정부 주도하에 경찰, 학교 및 학부모들의 총출력 연대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주요함 -보상은 정부차원의 규율하는 법률은 없고 주로 민사소송을 통해	-1960년대 이후 무관용 정책을 유지함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법률내에서 학교폭력관련 사안 처리하며 이 법은 주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짐 -1990년대 이후 폭력과 괴롭힘을 구분해	-학교폭력에 관련된 연방 법률은 없으며 각 주에서 개별적으로 입법해 규정함 -각 주의 학교폭력 법의 기본적 흐름은 보고(Bericht), 보험(Versicherung) -독일은	-노르웨이의 학교폭력 예방정책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삼아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음 -1982년부터 노르웨이 정부는 국가차원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정책을 체계화시킨 -학교폭력에 대해 노르웨이는 무관용 원칙과 유관 기간 간의 실질적 연동체계 가동이 특징적임 -학교폭력에 대해 교육법과 행정법이 주도적인 시스템 역할을 함
학교폭력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법률	범죄와 무질서에 관한 법률	안전한 학교개선편법과 괴롭힘 방지법	학교법	교육법과 행정법	
그 외 의미있는 부분	-영국은 가해학생에 대해 선도 조건부 훈방 제도를 활용해		-독일은 형사사범의 적용대상 가해자들에게 전향제도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선언(Manifesto against Bullying)이 노르웨이	

출처 : 송태현(2017: 76~102), 한유경 외(2020: 32,35) 재구성함

## II. 이론적 배경 및 문헌고찰

###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 정책과 관련 현황

1기부터 4기까지(1995년~2017년)의 시기별 학교폭력대응에 대한 주요정책

시기	학교폭력에 대한 주요정책	시기	학교폭력에 대한 주요정책	시기	학교폭력에 대한 주요정책
제1기: 태동기 (1995~2005)	-1995년 5·31 교육개혁안 및 관계부처합동 학교폭력근절 대책 수립·시행 -1997년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합동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추진 -1999년 교육부가 학교폭력 관련 학생생활지도 업무를 시·도교 육청으로 이관 -2004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하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업무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	제2기: 점증기 (2006~2010)	-2008년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2009년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0~2014년)의 수립 및 시행 -2011년 5월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제4기: 감소기 (2013~2017)	-2013년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년) 수립 및 시행 -2015년 초등학교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2017년 학교 내 학생대상 성폭력 예방대책
	-2004년 1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같은 해 7월부터 시행 -제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05~2009년)의 수립 및 시행	제3기: 고조기 (2011~2012)	-2012년 1월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2012년 2월 관계부처 합동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2012년 3월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출처 : 정시영(2018: 60~94) 재구성함

## II. 이론적 배경 및 문헌고찰

### 학교폭력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학교폭력에 대한 대상별 연구동향

. 전통적으로 양적연구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중 가해자와 피해자, 방관자연구가 주로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오다가 최근 집단역동에 근거한 학교폭력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함.

. 가해자연구는 전통적으로 많이 수행되어 왔으며 가해자의 미시적 환경체계 및 개인적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옴. 가해자의 개인적 요인과 관련되어 심리적 요인으로 공격성(청소년폭력에방재단, 1996),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는 경향 및 공감능력의 결여(권현용·김현미, 2009)가 있다고 밝힘. 그리고 학교폭력은 가해자에게도 정서상 불안정, 우울을 초래하고 학교 및 사회부적응까지 이르게 한다(이미영, 2015)고 보고함. 가해자의 미시적 환경체계 연구 중 가족연구가 상당수 있음. 학교폭력 가해자는 부모에게 사랑 없이 체벌을 당한 경우가 많고(이성식, 2001), 가족폭력의 경험이 있을수록 학교폭력을 저지를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김정옥·박경규, 2002)고 보고, 권현용과 김현미(2009)는 가정폭력경험이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폭력을 정당화 해주는 일종의 규범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함.

. 피해자연구는 피해자 유형에 대한 연구와 이들의 추후 발달경로 연구가 의미성을 띠고 있음. 왜냐하면 피해자는 단순한 유형과 동일경로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형별로 개인할 프로그램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임. 관련해 Olweus(1992)는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을 소극적 피해자와 도발적 피해자로 분류해 설명함. Schwartz et al.(1997)은 공격적 피해자와 수동적 피해자로 분류한 이후 이에 대한 구분을 더 확장시켜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 학교폭력 가해 집단, 학교폭력 피해 집단,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으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을 시도함.

. 방관자연구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방관자의 위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 이와 관련해 전주연(2004)은 학교폭력의 현장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방관자의 입장을 취한다는 것을 밝힘. 한편 김현주(2003)는 방관자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가해자편에서 서거나 피해자를 동정하는 상반된 경향을 보인다고 함. 손강숙과 이규미(2015)는 방관자가 만일 고의적으로 가해자에게 동조하고 지지하는 방식으로 학교폭력 상황을 묵인한다면 가해자들의 행위가 암묵적으로 승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밝힘.

. 최근의 연구들은 학교폭력이 집단역동을 기반으로 발생되고 진행된다는 것을 보고함. 신혜섭(2005)은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상당수 학생들이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고 하며 학교폭력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양분 구도로 바라보는 시각에 의문점을 던짐. 최수미와 김동일(2010)은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과거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던 경우가 많고, 특정 학생에게 가해하는 학생이 어떤학생에게는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밝힘(한국교육개발원, 1998). 선행연구들은 학교폭력 연관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하나의 집단에 정착하는 것이 아닌 다른 집단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밝힘(박영신·김의철, 2001; 이춘재·곽금주, 2000; 정지민, 1998; 신희경, 2006; 박순진, 2009)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 뇌 활성 패턴 다르다



## II. 이론적 배경 및 문헌고찰

### 학교폭력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학교폭력에 대한 질적연구 동향

.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질적연구는 2000년 이후 KCI 등재 후보지 이상 기준으로 700편 넘는 편수를 보이며 그 중 10%이상은 현상학적 연구로 작성된 실정(이혜정, 2017)

. 이와 관련한 질적연구의 대상들은 가해청소년, 피해청소년, 방관청소년, 가해청소년 부모,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교사, 전담경찰관 등임. 질적연구는 대상자가 학교폭력의 내부자적 시각에서 의미를 기술하는 것이 핵심이란 점에서 각 대상자들은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 학교폭력을 해석하는 관점이나 의미의 구조등에서 다양한 결과를 보여줌

. 박효정(2006)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사의 시각을 드러내었는데 학교폭력의 원인은 가해자 가정의 열악함, 가해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부실함으로 기술함. 강소영(2012)은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질적연구를 수행, 이 연구에서 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의 발생원인으로 가해학생의 부정적 심리정서 및 가해학생 가정의 역기능 문제, 가해자를 통제하기엔 역부족인 무력한 교권으로 바라봄.

. 한편 질적 연구 대상자별로는 학교폭력 가해청소년(김경미, 2015; 박성희, 2015; 이응혁, 2006; 전미미 외, 200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피해 청소년(고경은, 2014; 이진숙, 2012)이 참여한 연구가 높았음.

. 이응혁(2006)의 연구에서 가해자의 폭력은 절박한 상황에서의 도피나 다른 학생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수단이었음. 비슷한 흐름으로 이희연(2013)의 연구에서 가해자들은 폭력이란 피라미드로 위계화되어 있는 정글같은 학교에서 꼭대기층의 상위계층임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자 교육방식이라 의미화 했음.

. 학교폭력 피해자를 연구한 질적연구들을 보면, 피해자들은 몇가지 공통된 패턴으로 의미기술을 함. 우선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당시 피해 경험에 대한 의미 기술보다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경험에 대한 의미화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이진숙, 2012; 고경은, 2014). 다음으로 피해자들은 가해행위도 중첩적으로 경험한 부분에 대해 의미기술을 많이 함(서근원, 2016; 사공미숙, 2015).

. 방관자 연구는 피해자 연구와 마찬가지로 방관자들이 공통된 의미기술을 하는 경향성을 보여줌. 첫째, 방관자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인식하며 죄책감과 위협에 처하지 않으려는 마음 간의 내적 갈등을 표현(이신애·김희정, 2013; 이혜정, 2017). 둘째, 방관자들은 대체로 피해당하는 학생들의 상황을 인지하면서 이에 대한 죄책감을 희석시키기 위한 합리화 수단을 고안하는 특성을 나타냄(이신애·김희정, 2013; 이혜정, 2017).



### Ⅲ. 연구방법: 현상학적 자기평가방법

#### 현상학적 연구방법: 현상학의 이해와 현상학적 연구방법

- Conte에 의해 주창되어 20세기 사회과학을 지배해 온 패러다임은 실증주의였음. 실증주의는 연구주체와 연구대상의 분리가능성을 전제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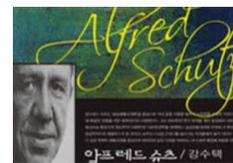
- 이에 대해 Weber와 Dilthey는 실증주의를 비판하며 해석주의를 주창함. 해석주의는 실재하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실재는 존재하지 않으며 실증주의가 담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이해는 불가능하다 봄. 이런 이해는 오직 경험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에 연구의 주체, 객체와 사람과 사회의 이분법적인 틀을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간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해야 한다고 논함(임병우 외, 2018).

- 해석주의 패러다임 안에서도 의미있는 경험을 한 주체의 해석에 집중을 하는 것이 현상학임. 이렇듯 현상학은 실증적 연구방법으로 대표되는 양적연구방법의 한계와 문제점이 논의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은 엄밀히 말해 자연과 다른 존재로 그들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현상학의 주장임.

- 현상학은 수학자 Husserl로부터 시작했고, 그는 당대 유럽의 학문이 '자연 그대로의 현실'에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허상적 이념들을 사용해 현실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함. 이런 관점에서 Husserl은 어떤 명제나 선입견 등 이론적 개념들의 저항을 받지 않고 경험세계에 놓여져 있는 인간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드러내려 함(이남인, 2006)

- Schutz는 Husserl의 영향을 받아 Weber의 '이해' 개념을 바탕으로 현상학에 기반한 사회과학적 체계를 수립(최중혁, 2009). 그는 '자연적 태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철학과 사회학에 기여를 함(김광기, 2016)

- 현상학의 특징들: 의식의 지향성, 현상학적 판단중지, 본질직관



### Ⅲ. 연구방법: 현상학적 자기평가방법

#### 현상학적 연구방법: 현상학의 이해와 현상학적 연구방법

-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1960년대 Husserl이 주창한 현상학에 기원을 두면서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정착됨. Heidegger는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바탕으로 인간세계와 실존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현상학적 방법을 만들음. Schutz는 자연적 태도를 기반으로 한 현상학적 방법을 발전시킴. Merleau-Ponty는 Husserl의 추상적인 현상학적 방법을 가시화하기 위해 '여전히 현상학이란 무엇인가'란 질문으로 현상학을 구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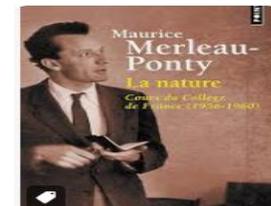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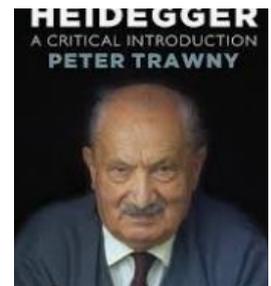
- 현상학적 연구방법에서 경험의 본질은 무엇을 경험했는가? 및 어떻게 경험했는가(Moustakas, 1994)로 구성. 또한 이 방법론이 기반하고 있는 철학적 가정들은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몇 가지 공통점을 보여줌, 그것은 인간이 체험한 경험연구라는 것이고 이런 체험들은 그 경험자들의 의식이라는 점임.

-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Husserl 이후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전개되어 왔지만 크게 두가지 흐름으로 대별됨.

- 우선 Heidegger의 해석학의 영향을 이어받은 Van-Manen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있음, 인간이 경험하는 생활세계를 시간성, 공간성, 신체성, 관계성이라는 4개의 실존체 체현구조로 설명. 이 구조를 바탕으로 그는 하나의 현상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이와 관련된 경험의 특성을 구성하는 본질적 주제들에 대해 반성후 연구주체와 긴밀하면서도 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글의 전체와 부분간의 균형을 맞추며 현상에 대해 서술하는 것으로 마무리(Creswell, 2018).

- 다음으로 Giorgi의 현상학은 Husserl의 판단중지와 자유변경을 주로 사용해 대상의 본질에 도달하는 현상학적 방법론임. 연구 대상자의 체험이나 경험을 온전히 기술하는데 집중되어 있으므로 그의 방법론은 기술적 현상학이라 불리기도 함. 이 방법론의 대략적인 절차는 대상자의 경험을 판단중지와 자유변경을 거쳐 기술하는 것이며 그 후 연구자가 대상자들의 경험에 대한 조직적 기술과 각 대상자들의 조건이나 상황맥락에 따른 구조적 기술로 서술(Moustakas, 1994).

- 본 연구에서 사용한 현상학적 자기평가방법이 있음. 이 방법은 대상의 본질에 도달하기 위한 환원단계에 대한 과정이 구체적이며 이로 인해 연구자는 본질에 대한 이해인 본질직관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장점을 얻을 수 있음(최중혁, 2014). 간략히 이 방법론의 절차를 설명하면, 연구대상자로부터 추출된 자료에서 상황의 의미에 따라 절편화를 하는 환원 1단계. 그 후 상황의 의미를 명확히 요약하는 환원 2단계. 당사자 입장에서 재해석하는 환원 3단계. 의미구조를 명료화하는 환원 4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이런 과정을 통해 범주들을 생성하고 그 범주들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그림을 나타냄. 이후 범주들간의 그림들을 설명하는 스토리라인을 작성한 후 범주별 분석결과를 서술(최중혁, 2014).



### Ⅲ. 연구방법: 현상학적 자기평가방법

#### 자료수집: 자료수집방법, 연구참여자선정 및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은 질적연구에서 의미가 중요한데 수집된 자료는 동시에 자료분석과 연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구의 성패와 직결되기 때문, 그리고 자료의 수집과 자료의 분석은 함께 진행되며 자료가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시 맞는 자료의 수집을 반복해야 함. 특히 현상학은 자료수집이 대상자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집되므로 연구의 목적에 맞는 내용을 꼬집어 낼 때까지 같은 대상이나 다른대상을 통해 포화상태까지 이 과정을 지속해야 함.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3년 5개월이었으며, 그 후 코로나 시기를 지나 2023년 3월에서 7월까지 4개월 동안 추가된 연구대상자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료수집을 함. 처음 자료수집을 한 2019년 6월부터 본 연구자와 2018년부터 라포가 형성된 사이버 과외제자 2명을 연구대상으로 섭외, 그의 4명의 추가대상은 2021년 이후 지역아동센터장 및 고등학교선생님들을 통해 소개받음.

인터뷰 방식은 사이버학생 연구참여자들 2명은 방해받지 않는 각자의 독립된 방이나 스튜디오룸에서 화상 인터뷰로 진행, 그 외 추가로 소개받은 4명의 대상자들은 2021년 7월 이후부터 대략 1달에 2번정도 참여자가 사는 곳의 카페나 스튜디오룸, 지역아동센터 미팅룸 등 방해받지 않은 장소에서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료수집이 이루어짐.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연구목적과 주제에 대해 고지하였고 인터뷰에 응할 것을 자발적으로 동의 받음, 전체적인 분위기는 편안하게 유지하며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인터뷰 진행, 6명의 연구대상자들과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는 이론적 포화상태가 이루어질 때까지 1회 약 40분정도 10회가량 심층인터뷰를 함. 동영상 및 녹음을 연구대상자들에게 허락을 받았고, 촬영된 동영상 및 녹음은 연구자가 일일이 대상자의 인터뷰내용을 직접 글자로 옮김. 또한 인터뷰시 연구자의 연구 취지, 연구개요를 설명.



### Ⅲ. 연구방법: 현상학적 자기평가방법

#### 자료수집: 자료수집방법, 연구참여자선정 및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연구참여자들의 특성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은 첫째, 청소년으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이며 학교폭력의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중 최소 하나 이상의 역할을 경험함. 둘째, 학교폭력의 경험에 대한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언어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함, 왜냐면 현상학에서 주제로 다루고 있는 일상생활이나 경험은 결국 연구대상자의 인식이나 의식에서 생성되는 것이므로 연구대상자가 경험한 인식을 연구자에게 언어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함. 셋째, 연구참여자의 자발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심적으로 괴롭고 감정적으로 고단한 일이기 때문. 연구대상자의 자발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학교폭력이라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상기해 연구자에게 전달한다는 것이 무리이기 때문임

각 연구참여자들의 특징은 우측 표와 같음

성명 (가명)	학년	성별	거주지 역	가해경 험	피해경 험	방관경 험
Y	고2	여성	경상도 창원	X	O	O
J	중3	남성	경기도 일산	O	X	X
H	고1	여성	경기도 평택	X	O	O
C	고1	남성	서울 신림	O	O	X
K	고2	남성	경기도 덕소	O	O	O
B	중2	남성	충청도 천안	X	X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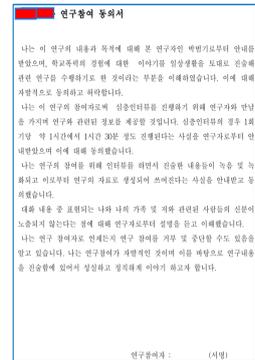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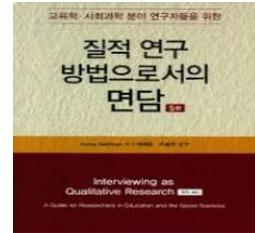
### Ⅲ. 연구방법: 현상학적 자기평가방법

#### 자료수집: 자료수집방법, 연구참여자선정 및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Burns, 1989),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내밀한 경험과 이야기들을 그대로 들을 수 있고 특별한 교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윤리적인 고려를 해야 함

· 더욱이 현상학연구에서 자료를 만드는 주요방법인 심층인터뷰는 연구대상자들이 연구자와 대화등을 하는 중 역눌렸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할 수 있으며 이와 연관된 부정적 감정들을 다시 느끼게 할 수 있음. 이런 사정때문에 본 연구자는 연구진행 전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보호차원으로 연구에 대한 정보등을 제공한 뒤에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음.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인터뷰 대상자와의 처음 만남부터 인터뷰 과정을 포함하는 자료수집 과정, 인터뷰전의 연구목적에 대한 고지 및 동의, 그 밖의 윤리적인 쟁점과 관련되는 사항들에 주의하려 함

· 연구자는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연구대상자들과 함께 수행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려 함. 질적연구의 특성상 연구대상자들의 경험과 자료가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 그런 점에서 본 연구자는 연구대상자들에게 존중을 항상 표시하려 했으며 인터뷰 진행 중 말씨와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함. 그리고 연구참여와 관련된 안내문을 함께 읽고 연구의 취지 및 목적,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 그 후 연구대상자들의 신상에 대한 정보, 인터뷰 때 진술한 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및 자료보관과 정보의 공개수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줌. 본 연구자는 녹음이나 녹화되는 인터뷰 내용은 연구목적에만 사용되고 다른곳에서 일절 쓰이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으며 연구진행 중 연구대상자들은 언제든지 인터뷰를 철회할 수 있다는 부분도 연구대상자들에게 주지시킴. 연구 윤리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 연구대상자들에게 납득을 시킨 후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음.



### Ⅲ. 연구방법: 현상학적 자기평가방법

#### 자료의 분석: 자료분석방법

· 본 연구는 현상학적 원리를 철저히 추구하면서 현상학적 방법을 구체화한 현상학적 자기평가방법(최중혁, 2014)을 사용해 연구를 진행함

· 현상학적 자기평가방법의 제 1단계는 상황 의미에 따른 절편화 단계. 이과정에서 연구자는 직·간접적인 개입에 대한 자료(상황)를 수집한 뒤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세세하게 파악. 우선 전체적인 내용과 상황을 탐색한 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행간의 의미를 짚어가며 면밀하게 읽어 내려가야 함. 이어서 상황의 맥락을 기준으로 의미가 다르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절편화하는데 이 때 절편화 범위는 한 줄일수도 있고 몇 페이지에 달할 수도 있음. 즉 절편화에서 중요한 점은 내용의 분량이 아니라 의미의 성질임

· 현상학적 환원 제 2단계는 상황의 의미를 명료화하기 단계. 이 부분은 '누락된 사회적 맥락'을 명료화하는 과정임. 연구대상자들은 일일이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지만 이해당사자는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음. 왜냐하면 그들 상호간에는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맥락'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환원 제 2단계에서 생략되거나 함축된 사회적 맥락을 명료화하게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함. 이 분석결과에 따라 상황의 의미는 제3자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그러므로 이 상황적 의미를 명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생략되었는지를 알아야하며 이를 위해 객관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 이 작업을 위해 절편화된 상황을 속성과 차원으로 세세하게 구분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이를 통해 제3자도 상황에 대해 납득가능함

· 현상학적 환원 제 3단계는 당사자 입장에서 재해석하기 단계. 환원 제 3단계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 그 객관적 의미는 어떤 관점이나 시각에서 말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즉 당사자의 심리·사회학적 맥락에서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으로 이를 객관적 의미를 투기적 의미로 바꾸어 당사자의 반응을 명료하게 하는 것이라고 함. 이 투기적 의미는 2단계에서 기술된 상황이 담겨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특정 개인에게만 통용되지 않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개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함. 투기적 의미에서 이런 두가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현상의 본질에 접근되었다고 함



### Ⅲ. 연구방법: 현상학적 자기평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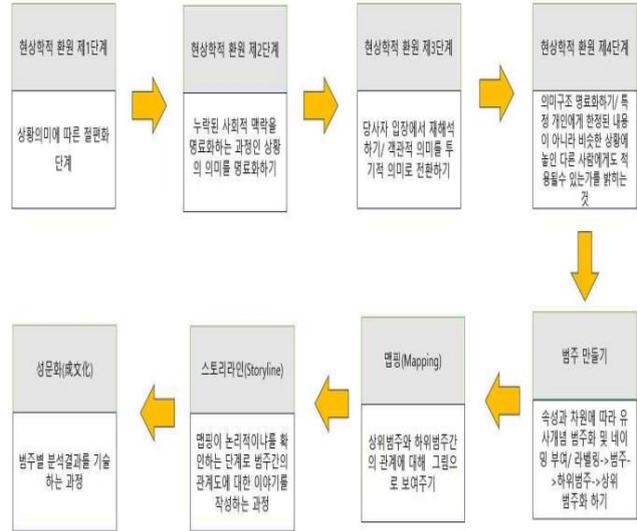
#### 자료의 분석: 자료분석방법

현상학적 자기평가의 자료분석과정

현상학적 환원 제 4단계는 의미구조 명료화하기 단계: 4단계에서는 의미가 특정 개인에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처한 다른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야함.

이를 의미의 공통된 분모라고 하며, 이같은 의미의 공통분모는 속성으로 드러나며 Guba와 Lincoln(1985)이 논한 것처럼 맥락적(context), 전체적(holistically)인 형태로 구조화되어 보여짐.

공통분모들은 연결되고 분류되어 하위범주로 명명, 하위범주들은 다시 그들끼리 연결되고 분류되어 중위범주로 명명, 중위 범주들끼리 연결되고 분류되어 추상성 높은 개념인 상위범주(실존적 카테고리)로 명명됨



### Ⅲ. 연구방법: 현상학적 자기평가방법

#### 자료의 분석: 자료분석과정

#### 1. 현상학적 환원 제 1단계 상황의미에 따른 절편화 단계

현상학적 환원 제 1단계에서 먼저 수집된 자료의 전체 내용을 훑은 뒤 그 후 손가락으로 행간 하나하나를 쫓아가면서 면밀하게 자료를 읽었다. 이 과정에서 상황 맥락적 관점에서 의미가 다르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절편화하려 했다. 동시에 본 연구자는 선이해((Vorverstehen)가 작동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 판단중지(epoche)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려 했다. 이런 방식으로 본 연구자는 의미의 성질이 다른 부분들을 구분해 각각의 절편등을 나누었다.

### Ⅲ. 연구방법: 현상학적 자기평가방법

#### 자료의 분석: 자료분석과정

##### 2. 현상학적 환원 제 2단계: 상황의 의미를 명료화하기

현상학적 환원 제 2단계에서는 절편화된 내용에 있어 '누락된 사회적 맥락'을 명료화하는 작업이 수행된다. 1단계에서 나는 절편화된 내용을 좀 더 명료화 해서 보기 위해 생략된 부분을 파악해 객관적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해 절편화된 상황을 세세히 구분해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실제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자: 전혀 예상외의 변수였던 것 같은데요. 학교폭력 피해당하셨을 때 그걸 어떻게 방어하셨는지 이야기 해줄수 있어요?

대상자(Y): 전혀 방어는 안되었구요. 제가 음악으로 대학갈라고 인문계에서 실업계로 전학왔는데 대놓고 전학은 학번의 일진들이 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아이없어서 같은 친구끼리 그러지 말자고 했는데 일진 중 한 애가 저한테 마시던 우유 던지더라고요. 그다음 다른 일진들이 둘러싸서 저한테 존나 개념없는 년이네. 교육종 우리가 시킬게 씨발년아 하면서 뽀 때리고... 한 6개월간 다른 아이들도 저한테 말도 안걸고 말그대로 두명인간 취급하고... 틈만 나면 일진들은 쟁쟁고 재 쟁쟁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때 정말 자살하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인간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으로 가득차고... 인터넷에서 저 괴롭히던 애들 죽일려고 칼이나 송곳같은 것도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다 1달동안 기출에서 노숙생활도 했구요. 저금까지의 제가 아닌것 같은 시기였어요.

위 절편화된 내용에 대해 숨겨진 사회적 맥락을 명료화하기 위해 객관적 의미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내용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학교폭력 피해자의 의도: 음악으로 대학진학하기 위해 인문계에서 실업계로 전학옴
- 학교폭력 피해자의 피해양상: 일진들의 욕, 물건으로 맞음, 신체폭력, 6개월 왕따, 쟁쟁기, 쟁쟁버리기
- 학교폭력 피해자의 심경과 행동양상: 인간에 대한 혐오감, 살인 충동으로 인한 흉기구매, 1달간 기출에 노숙생활

본 연구자가 위 절편내용에서 찾아낸 객관적 의미에 대해 숨겨진 사회적 맥락을 명료화한 작업은 아래와 같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음악으로 대학진학을 쉽게 가고자 인문계에서 실업계로 전학왔다. 하지만 실업계학교에서 기존 일진들의 타겟이 되어 언어적 욕설, 신체폭력 및 왕따등을 당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이로 인해 부정적 경성과 살인충동의 감정을 겪었고 가해자들을 실제 죽이기 위해 흉기도 구매하려 했다. 괴로움에 못이겨 학교폭력 피해자는 1달간 기출에 노숙생활까지 했다.

위에서 본 연구자가 상황의 의미를 명료화하기 위해 생략된 객관적 의미를 기술해 제3차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업했다. 그러나 현상학적 본질에 더 도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어떤 시각에서 말하고자 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단계인 현상학적 환원 제3단계가 진행되어야 한다.

### Ⅲ. 연구방법: 현상학적 자기평가방법

#### 자료의 분석: 자료분석과정

##### 3. 현상학적 환원 제 3단계: 당사자 입장에서 재해석하기

이 단계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서 어떠한 의미에서 말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2단계에서 수행한 객관적 의미를 당사자가 생략한 투기적 의미로 바꾸어 그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반응을 명료화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앞단계에서 진행한 객관적 의미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해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여기에서 예로 든 객관적 의미는 주요한 두가지 객관적 사실이 있음을 검토할 수 있었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단지 일시적인 신체,정신적 상처를 입은 정도가 아니라 자살충동 및 가해자에 대한 보복을 기획할 정도로 트라우마를 겪었다. 둘째,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한달간 기출에 노숙생활을 할 정도로 이 트라우마를 혼자서 감당해야 했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런 객관적 의미가 투기적 의미로 어떠한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쟁쟁기, 우유 던지기, 흉기 폭력 및 욕설과 쟁쟁충동, 인격도둑들의 피해를 겪었다. 그 영향으로 피해자는 인간에 대한 혐오감 및 자살충동등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했으며 가해자에 대한 복수심으로 그들에게 보복할 계획을 세울 정도로 극심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 그 후 노숙생활도 하는 등 삶의 의지도 상실된 모습을 보인다. 이렇듯 학교폭력 피해는 단순히 일시적인 신체적,심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깊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안겨준다는 상치를 남긴다고 볼 수 있다. 트라우마의 성격은 치료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대개 인생전반에 걸쳐 그 후유증을 가진다는 점이다. 또한 이런 고통을 타인은 알수가 없고 오로지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영혼의 상처에 해당하는 트라우마를 감당할 정도로 심리적 상처에 시달리는 상황에 놓인다.

본 연구자가 작성한 투기적 의미는 이전 단계에서 다른 객관적 사실인 원자료(raw data)가 담겨 있어야 하며 연구대상자 개인에게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상황을 겪은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한다. 확인해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 투기적 의미는 현상의 본질에 더 접근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 3단계에서는 현상의 본질에 도달한 상태인 본질적관으로 전환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계속적인 검토작업이 필수적이다. 최종혁(2014)은 세 가지로 검토결과를 제시했으며 이 절차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의적인 관점에서 객관적 상황이 충분히 담겨져 있는가, 둘째, 당사자의 입장에서 현상학적 환원결과가 투기적 의미로 해석되었는가, 셋째, 투기적으로 해석한 의미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적용가능한가이다.

상기의 내용처럼 연구대상자 Y는 두가지 점들을 이야기했다. 첫째, 피해 학생은 단순한 신체적, 심리적상처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고통받을 수 있는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 둘째, 피해 학생은 이 트라우마를 오로지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 투기적 의미로 본 연구대상자 Y가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학교폭력 피해자는 평생에 걸쳐 고통받을 수 있는 트라우마를 겪는데 이는 피해가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리벨링을 '심리적 상처들을 경험하는 피해자'로 명명했다.

### Ⅲ. 연구방법: 현상학적 자기평가방법

#### 자료의 분석: 자료분석과정

#### 4. 현상학적 환원 제 4단계: 의미구조 명료화하기

의미구조 명료화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당사자의 투기적 의미를 검토하고 특정 당사자에게만 통용되는 것이 아닌 비슷한 상황에 위치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 단계에서는 다른 이들과의 '의미의 공통분모'를 찾아 비슷한 처지에 위치한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의미의 해가 도출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공통분모들을 연결, 분류하여 개념으로 이름짓고, 이 개념들을 집합목숨으로 연결, 분류해 하위범주로 명명하였다. 그 후 이 하위범주들끼리 연결하고 분류해 상위범주로 추상성 높은 개념으로 이름지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흩어진 의미들은 서로 연계되고 구조화되었다.

라벨링에서 개념으로 묶는 과정 예시

-학교폭력 피해자는 단순한 신체적, 심리적상처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고등받을 수 있는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데 이런 트라우마는 오로지 피해자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다.

-----> 심리적 상처들을 경험하는 피해자

개념 명명> 하위범주 명명> 상위범주 명명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심리적 상처들을 경험하는 피해자	피해자: 공동체에서 배제된 존재	폭력의 트라이앵글
-1의 평화		
폭력상황에서 침묵하기		
폭력상황에서 벗어나기		
집단의 분위기 맞추기	방관자: 침묵과 생존전략으로 무장된 다수	
집단적 힘에 굴복하기		
나와 관련없는 문제인 학교폭력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관심없애기		

### Ⅲ. 연구방법: 현상학적 자기평가방법

#### 연구의 엄격성 확보

본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엄격성이 필수적임. 양적 연구는 계량화, 정형화된 틀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측정하지만 질적 연구는 이와 다른 방식의 측정 방식을 사용, 그 중에서도 질적 연구에서 정평이 나 있는 방법이 Lincoln과 Guba(1985)의 엄밀성 평가기준임

이 엄밀성 평가기준은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임

사실적 가치는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내적 타당도의 역할하므로 연구자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구과정과 결과의 흐름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에 대한 인터뷰를 심화하려 함. 구체적으로 심층인터뷰 진행 이외에도 ZOOM이나 오프에서의 수차례 만남을 가지거나 수시로 연락을 취해 관련 내용과 자료의 정확성 및 충실성에 만전을 가하려고 함, 이런 과정을 통해 자료의 신뢰성을 높여 줬음

적용성은 연구결과가 일반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해당됨. 이를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포화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자료의 수집과 분석의 과정을 반복함. 특히 자료의 수집에서 본 연구자는 이론의 포화상태를 위해 더 이상 새로운 진술이 나오지 않을때까지 충분히 연구대상자들과 접촉해 심층면접을 지속적으로 진행, 자료수집이 시작되면서부터 자료분석도 동시에 실시해 현상의 제대로 된 의미를 이해하고 전체와 부분의 의미가 잘 통할 수 있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확인하며 수집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함

일관성은 양적연구방법의 신뢰도에 해당함. 그러나 최중혁(2009)에 따르면 결과의 동일성에 초점을 맞춘 양적 연구의 신뢰도와 어느 정도 구별되는 개념이라 함. 즉 연구 대상의 성질과 연구한 결과의 일관성에 무게중심이 있고 그 이면엔 연구자의 자료수집 및 자료 분석과 연구에 투입된 시간 등이 결합된 화학적 성질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관성을 연습하기 위한 연구자의 훈련과 이를 감독할 슈퍼비전이 필요함.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자는 질적연구학회에서 발제 및 질적연구 Workshop 과정도 꾸준히 참석해 연구능력을 배양하려 함

중립성은 양적연구방법의 객관성에 해당됨.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견과 편향성을 피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대상의 심층 인터뷰부터 자료수집 및 자료 분석에 이르기까지 판단중지(epoche) 태도를 유지하려 했음. 특히 연구진행의 처음부터 종결까지 연구노트와 메모를 활용해 이런 중립성을 지키려 노력했음.



## IV. 자료의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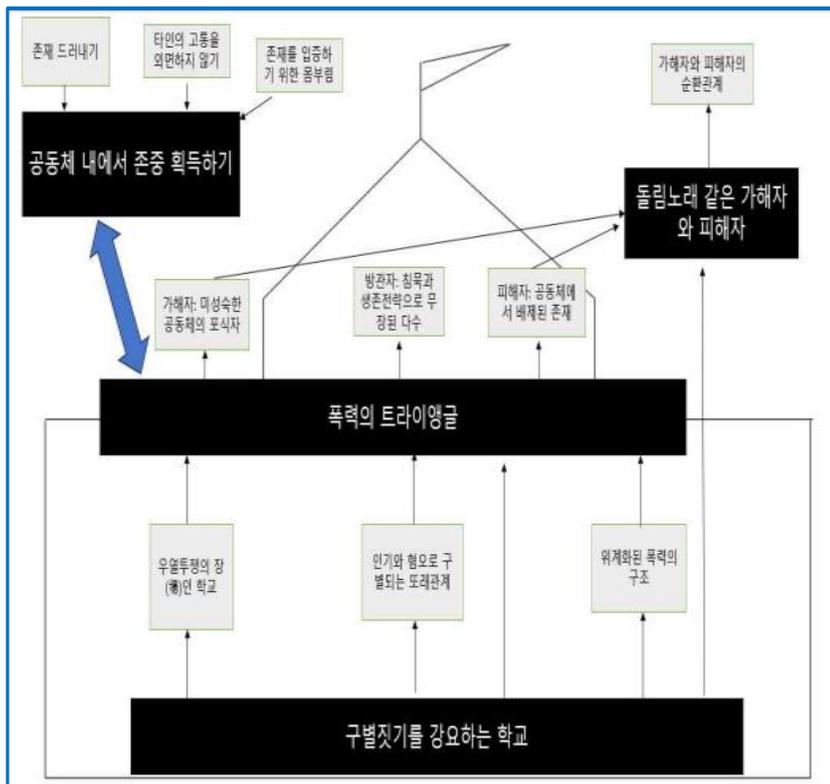
자료의 분석결과, 상위카테고리는 <구별짓기를 강요하는 학교>, <폭력의 트라이앵글>, <돌림노래 같은 가해자와 피해자>, <공동체 내에서 존중 획득하기>로 나타남

자료분석결과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 구조표

개념	하위 범주	상위 범주	개념	하위 범주	상위 범주	개념	하위 범주	상위 범주
인성교육은 도외시됨	우열투쟁의 장(場)인 학교	구별짓기를 강요하는 학교	계급관계 스펙트럼이 넓은 시열관계	구조	폭력의 트라이앵글	아닌 교육	모순된 가해와 피해의 경험	돌림노래 같은 가해자와 피해자
학업에만 초점이 맞춰진 교육			폭력의 위계구조는 폭력을 재생산하는 시스템			빠른 권력의 전환		
학교폭력은 우월함을 증명하는 장(場)			구별짓기가 작동된 폭력구조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전환시키는 상황과 사건의 발생 맞서기 위한 기회 마련하기		
무기력한 학교폭력은			공동체의 보호장치가 사라진 피해자			집단분위기에 반대하는 목소리 내기 능력을 보며		
학교시스템과 선생님 일상화로서의 소문과 뒷담화	인기와 힘으로 구별되는 또래관계	구별짓기를 강요하는 학교	-1의 평가	피해자: 공동체에서 배제된 존재	발판자: 침묵과 생존전략으로 무장된 다수	존재 드러내기	공동체 내에서 존중 획득하기	
친구관계가 아닌 계급관계			피해자는 당해도 될 원인을 제공한 자 심리적 상처들을 경험하는 피해자			공동체의 인정받기 평판과 인간관계		
협오단어로 불리는 약자			폭력상황에서 침묵하기			정서적으로 연대하기		
협오를 정당화하는 집단 분위기			폭력상황에서 벗어나기			빡과 제도물 활용하기		
또래관계에서의 로망	인기와 힘으로 구별되는 또래관계	구별짓기를 강요하는 학교	김단의 분위기 맞추기	가해자: 미성숙한 공동체의 포식자	가해자와 피해자의 순환관계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기	돌림노래 같은 가해자 와 피해자	
폭력은 강자의 상징			김단적 힘에 공복하기			존재를 입증하 기 위한 몸부림		
힘의 위계에 따른			나와 관련없는 문제인 학교폭력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관심없기			가해자: 미성숙한 공동체의 포식자		
			권력이 주는 자부심 권력이 주는 연의상 권력이 주는 재미			가해자: 미성숙한 공동체의 포식자		
	위계화된 폭력의 구조							

## IV. 자료의 분석결과

자료분석결과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 관계도



## IV. 자료의 분석결과

### 그림에 대한 설명

1

학교는 경쟁의 원리를 주요한 가치로 삼는다. 경쟁은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비정한 약육강식의 물이다. 이에 "경쟁의 공동체인 학교"에서 학생들은 강한 그룹과 중간그룹 및 약한 그룹등으로 <구별짓기를 강요>당하게 된다. 또한 학교는 경쟁의 최고목표인 입시와 수업 이외의 다른 영역은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간 구별짓기의 일환으로 벌어지는 "폭력행위도 방치"한다. 그 결과 학교는 '우열투쟁의 장(場)'이 되었으며 학생들간에는 잘나고 영향력 있는 그룹과 못나고 약한 그룹으로 구별된다. 즉 학생들은 '인기와 혐오로 구별되는 또래관계'의 모습을 나타낸다. 특히 학생들간의 구별짓기는 "힘에 의해 서열화된 관계"로 만들어지기도 하며 이 관계는 "폭력의 피라미드 구조"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이는 학교안에서 학생들이 '위계화된 폭력의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한다.

3

하지만 구별짓기의 공간인 학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는 영구적이지 않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 "빠른 권력의 전환"이 일어나기도 한다.

2

구별짓기의 공간에서 학생들은 <폭력의 트라이앵글>의 위치로 내몰릴 수 있다. 힘있고 영향력 있는 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권력을 향유하는 혜택을 누리기도" 하고 "또래에 대한 지배를 통해 자기존재감을 확인"하기도 한다. 그들은 학교폭력을 주도하는 가해자로 '미성숙한 공동체의 포식자'의 위치를 가진다. 다수의 학생들은 폭력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생존을 위해 전력하는 일상을 보낸다. 그들은 방관자로 <침묵과 생존전략으로 무장>한다. 그들은 구체적인 생존전략으로 "폭력상황을 옹호"하거나 가해자가 주도하는 "집단의 대세에 따르는"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 학교 내에서 가장 약한 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 피해자는 "공동체에서 버려진 존재"로 취급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혼자 그 트라우마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4

보통 청소년기의 정동노도적 심리상태와 결부되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전환시키는 상황과 사건이 발생"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전환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 처해진 학생들은 '모순된 가해와 피해의 경험'을 겪게 되기도 한다. 즉 <들림노래 같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험을 겪는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구별짓기로 추동되어 폭력이 지배하는 가해, 피해,방관의 <폭력의 트라이앵글>구조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들은 이에 "맞서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고 가해자가 주도하는 폭력을 받아들이는 "집단분위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며" 그들의 '존재 드러내기'를 시도하기도 한다. 그들 중에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있다. 이 피해자들 가운데 "능력을 보여 공동체의 인정받기"를 시행하기도 하며 성공한 학생들은 공동체의 "평판과 인간관계 쌓기"를 통해 '존재를 입증'하는데 성공하기도 한다. 또한 이런 <폭력의 트라이앵글>구조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법과 제도를 활용"해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의 상황을 도와주려 하며 피해자들간에 "정서적으로 연대하기"를 통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기'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로 그들은 <공동체 내에서 존중 획득하기>란 열매를 얻을 수 있다.

## IV. 자료의 분석결과(지면상 4장 1절 1항인 우열투쟁의 장인 학교만 보여드림)

### 구별짓기를 강요하는 학교: 우열투쟁의 장(場)인 학교

#### 1) 인성교육은 도의시 뉘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국영수 위주의 입시중심 수업에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도덕이나 윤리과목에 대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과목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히려 이 과목들은 자신들이 생활하는 학교의 현실과 맞지 않다 간주하며 우습게 보고 있다. 그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여타 다른 학생들과 인격적인 교류와 배움을 가진적이 없으며 학교의 일상을 지배하는 힘은 폭력이라 믿고 있다. 자신들이 몸을 담고 있는 학교의 실제현실은 학생들이 힘과 잘남을 추구하며 이를 획득하기 위해 인성은 포기한 현장이다.

학생들이 정말 자기만 알아요. 부모들이 너는 무조건 최고가 되어야 하고 엘리트가 되어야 해라고 세뇌시켜요. 그러다보니 그렇게 되기 위해 수단방법을 안가리는데 맞다고 생각하는거죠. 이 바다의 물은 학생들이 공부좀 잘하면 다 장명이에요. 공부 좀하면 일종의 권력이 만들어져 어떤것을 하든 허용이 되요. 웃긴 것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스트레스를 덜라 받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다른 약한 학생들에게 시비하는 걸로 풀어요. 그러면서도 잘못되었다고 생각도 못해요. 까놓고 이야기하면 학교에서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고 약한 학생들을 발원 조치던 다 허락되요. (연구참여자 Y)

#### 2) 학업에만 초점이 맞춰진 교육

학생들은 인생주기상 청소년기를 보내는데 시기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극적인 변화를 겪는다. 이런 변화는 청소년이 아동과 성인의 중간에 걸쳐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그들 중 좀더 외적으로나 심적으로 성숙한 청소년들은 일탈행위나 성인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행동들을 하는데 머리에 염색하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한다. 하지만 학교는 입시체제의 경쟁 논리가 작동하는 곳으로 사회에서 표면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윤리나 인성교육을 배제시킨다. 학업은 달리 말하면 성적으로 구현되고 이 성적은 입시경쟁에서의 랭킹이나 위치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는 움직이고 개별 학생들의 차별을 두게 된다. 학교선생님도 이런 학교의 규칙과 규율의 영향 아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학교선생님은 성적이 좋은 학생들과 다소 평등하게 대화하면서 속마음까지 터놓으며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험담과 뒷담화를 하는 모습까지도 보인다.

솔직히 학교원은 애들 성적에만 관심 있잖아요. 학교원은 날나리 같은 애들 걸로만 위하는 척하죠. 속으로는 무시하고 병신으로 보면서.... 그걸 어떻게 알았나면요 그 뉘이 다른 공부잘하는 애랑 뒷담화 까는 걸 우연히 들은적 있어요. 그 날나리 공부도 못하는게 짝친다고요. 학생은 공부가 우선이지 무슨 대가리에 팔강색 파랑색으로 염색이나 하고... 머리가 도화진줄 알았다고 웃긴건 우리학교 일진애들은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 많은데 뉘들이 그애들 약한아이들 괴롭히고 뉘들은것 알면서도 공부좀 잘한다고 우리 이쁜이들 하면서 대놓고 우쭐우쭐하고.. (연구참여자 K)

## IV. 자료의 분석결과(지면상 4장 1절 1항인 우열투쟁의 장인 학교만 보여드림)

### 구별짓기를 강요하는 학교: 우열투쟁의 장(場)인 학교

#### 3) 학교폭력은 우월함을 증명하는 장(場)

학교폭력은 겉으로 물리적 힘의 형태로도 드러날 수 있지만 일종의 문화나 분위기로 학급에 녹아있는 경우도 있다.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폭력이라 여기지 않았던 일종의 놀이가 이후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아는 경우도 종종 있다. 당시 영화나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허어나 영웅들처럼 뭔가 힘이라던가 우월감을 분출할 수 있는 일종의 '장(場)'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심리는 한두명 정도의 학생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시 학급 학생들의 공통적인 심리와 정서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때 그들은 이것을 학교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고 단순한 흥미와 오락거리로 치부했다. 게다가 학생들간에 뭔가를 보여주고 과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뿌듯함을 느끼며 자랑스러운 감정을 가지기도 한다.

네, 지금생각하면 진짜 이상한데 그런 다 몰랐거든요, 하는 애들도 근데 막상 싸움불이는-하는 애들도 막상 자기끼리도 재밌어하거나 저희는 이게 그런건줄 몰랐죠. 학교폭력이나... 그런것. 근데 아마 그 중에서도 싫어하는 애들도 있었을 건데 분위기가 그래서 하는 애들도 있을거니까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이고 이게 어쩌다가 드러났는지 기억은 잘 안나는데 담임선생님이 이걸 알게되가지고 반 전체가 큰

일날 뻔한 일이 있었거든요, 전체가 다 걸리게 아니라 싸우던 2명이 걸렸는데 그 2명이 징계를 심하게 받을텐 했다가 애들끼리 어쩌다 일을 맞추어서 단순히 뭐 시비가 붙어 싸운거다 이런식으로 끝나가지고 그냥 꾸중만 듣고 말았던 이런게 있었거든요. 저희끼리 할때도 이게 학교폭력인줄 몰라요. 그냥 재미같은걸로 생각하다가 뒤에 생각해보면 그게 딱 요즘 말하는 학교폭력이고 성폭력이고 그런거거든요. 당장 기억나는건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실제 싸워요 싸웠어요. 5번에 걸렸어요. 모르겠어요 중1때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들 그렇게 있잖아요, 영화같은 것 딱 따라하고 그러다보니까 자기끼리도 은근히 자랑스러워한것 같았어요. (연구참여자 B)

학교폭력이 일종의 문화로 정착이 되면 그 집단의 공간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폭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타인에 대한 인격모독이나 권리를 무시하는 상황인데도 이 폭력 문화를 수용한 학생들은 타겟이 된 학생을 향해 놀이하듯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더욱이 한명이 아니라 여러명이 같이 이런 폭력행위를 하면 잘못되었다는 죄의식이 무마되고 재미있는 유희가 되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 IV. 자료의 분석결과(지면상 4장 1절 1항인 우열투쟁의 장인 학교만 보여드림)

### 구별짓기를 강요하는 학교: 우열투쟁의 장(場)인 학교

#### 3) 학교폭력은 우월함을 증명하는 장(場)

이런 행위를 하는 학생 중 내면적 양심등의 작동으로 아니라는 생각도 하지만 이내 집단적 행동으로 유희에 집중하게 된다. 잘못되었지만 함께 이 놀이를 즐기므로 소속감을 느끼기도 하고 나는 저 열등한 학생처럼 타겟이 되지 않았다는 우월의식같은 것이 생겨 이로 인한 이상한 자부심도 느끼게 될 수 있다.

주로 선동하는 애가 있긴 있었는데 웬만하면 다 같이 붙었어요, 누구 누구... 이름이 다르다가도 한꺼번에 같이 또 부르다보면 자연스럽게 이름 정해지고 그러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데 당연히 무서운 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좀 기뻐할다 해야 하나... 그때도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중2병 같은 것 걸러가지고.... 무서운것도 있는데 그런데 은근히 약간 이런 좀 잘못된건데 살짝 뿌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비슷한게 있었거든요. (연구참여자 Y)

#### 4) 무기력한 학교시스템과 선생님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학교폭력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그 방법면에서는 고민이 많다. 원래는 학교측이나 선생님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탈출을 요청해야 하나 절망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 권력은 학교폭력의 상위위계에 속하는 집단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는 학교측이나 선생님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문의를 하더라도 무력하다는 것을 뜻한다. 오히려 신고를 한 학생들은 실제권력을 가진 상위위계 학생들에게 적발될 수 있고 그 때문에 그들에게 더 가혹한 처우에 시달릴 수 있다. 교과서적으로 학교에 대한 합법적 권력이나 영향력은 학교측과 선생님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비합법적 권력이지만 실세인 학교폭력 집단에게 있다는 것이다. 현실은 학교의 학교폭력 문화에서 학교시스템과 선생님은 무력하다.

에 있어요 맞은건 아닌데 제 친구랑 가다가 제가 2학년때쯤인가 3학년형들이 수돗가가 운동장 끝쪽에 있거든요. 손에 뭐가 많이 묻어서 손좀 씻으려고 갔는데 제가 깜박했던게 수돗가가 나무로 덮여져 있어서 형들이 담배를 엄청 피워뒀던거예요. 그걸 생각못하다 가서 형들이 3-4명 담배피고 있었는데 그중 한명이 13000원인가 뺏았어요. 샘한테 말하면 더 일이 커지기 때문에 .. 샘한테 말하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 학교폭력 대부분 그런식이잖아요. 말올하라고 해도 말하고 나면 가해자는 누가 끈질겼다 대응 아니까. (연구참여자 C)

## V. 결론 및 제언

###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에게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밝히는 데 있다.

분석결과는 4개의 상위 범주, 10개의 하위범주 및 37개의 개념으로 도출되었다. 그 중 상위범주는 <구별짓기를 강요하는 학교>, <폭력의 트라이앵글>, <들립노래 같은 가해자와 피해자>, <공동체 내에서 존중 획득하기>로 구체화되었다. 각 상위범주를 관련된 하위범주와 함께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별짓기를 강요하는 학교>**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며 문화로 자리잡은 학교는 인성교육은 도외시되며 오직 학업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학교폭력은 학생들간 우월함을 증명하는 문화로 녹아있기도 하며 이에 대해 선생님이나 학교시스템은 무능력한 대응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학교는 경쟁의 공동체이면서도 폭력을 실제적으로 은밀하게 방지하는 기제가 작동하는 곳이다. 학교는 우열투쟁의 장(場)과 같다. 또한 또래관계 즉 친구관계는 우정을 나누며 서로 원원하는 관계가 아니라 힘의 차이에 의한 서열로 나뉘어져 있는 정글의 세계이다. 서로 평등하지 않으므로 또래관계는 대화보다 소문과 뒷담화를 통해 약한 학생을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타겟화 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또래관계 중 약한 학생은 이름대신 혐오단어로 불리고 강한 힘이나 영향력을 가진 학생은 다른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학교에서의 또래관계는 인기와 혐오로 구별되기도 한다. 학교폭력이 문화로 정착된 학교는 폭력의 구조가 서열화된 피라미드식 위계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조는 힘의 위계에 따라 계급 관계가 나뉘어져 있으며 상층계급과 하층계급 사이에는 계급이 스펙트럼으로 촘촘하게 구분되어 있다. 또한 피라미드 구조의 최상위 계층은 무너

지지 않을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 뒤를 바치주는 배경까지 확보한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상위계층과 평면계층 간 구성원의 이동은 있을 수 있지만 구조자체가 전복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각 계층은 구별짓기 기제가 작동해 그 경계를 분명히 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즉 폭력의 피라미드 구조는 폭력을 재생산하는 시스템이자 구별짓기가 작동되는 구조라 볼 수 있다.

**둘째, <폭력의 트라이앵글>**이다. 이 절에서는 우선, 공동체에서 배제된 존재로서 피해자의 모습이 드러났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학교나 학급이라는 공동체에서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간주되며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서로 평화를 누리기도 한다. 피해자는 공동체에서 폭력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존재로 취급되며 폭력의 피해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을 정도로 극심한 상처를 홀로 경험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방관자는 침묵과 생존전략으로 무장된 다수의 모습으로 밝혀졌다. 학교폭력 상황에서 방관자들은 침묵하거나 그 상황을 물리적으로 벗어나 폭력상황을 은폐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 또한 가해자들 및 일진등 상위계층의 학생들이 주도하는 집단의 분위기에 순응하거나 그들의 힘에 굴복하는 등 대세를 따르면서 자신들의 생존을 보호하는 행위를 하기도 했다. 방관자들은 학교폭력 문제를 본인과 관련된 문제로 상정해 의도적으로 관심을 없애기도 하며 피해자에 대한 관심도 고의적으로 피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이득을 극대화 하려는 행위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가해자의 모습은 미성숙한 공동체의 포식자로 드러났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학교폭력이 주류적 문화로 정착된 학교에서 권력을 누리는 포식자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이 권력에 대해 자부심과 편의성 및 재미를 누리고 있다. 가해자들은 다른 학생들이 자신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며 자신들의 포식자로서의 위치를 확인하기도 한다. 가해자들이 다른학생들에게 행하는 가해행위는 폭력이 아니라 그들 세계의 물을 알려주는 일종의 교육이기도 하다.

**셋째, <들립노래 같은 가해자와 피해자>**이다. 이 절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순환관계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

## V. 결론 및 제언

### 연구결과 요약

는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은 생애주기상 청소년기 시절 발생한다. 청소년기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혼돈된 시기로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시기이다. 이런 특성과 더불어 집단의 인기와 세력에 근거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는 상당히 불안하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생각지도 못한 사건과 이벤트가 많이 발생하며 서로간에 오해가 잦은 시절이기 때문이다. 또한 돌림왕따 같은 학교폭력의 변형문화가 트렌드로 자리잡으면 권력의 전환이 빨라지기도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전환시키는 상황이나 사건이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는 고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위치가 바뀌기도 한다. 따라서 가해와 피해의 모순된 경험을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다.

**넷째, <공동체 내에서 존중 획득하기>**이다. 학교폭력 피해자나 일반학생들 중 자신의 정체성 및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이 확립된 학생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폭력의 트라이앵글로 자리잡힌 학교폭력 문화 때문에 훼손된 자신들의 정체성이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가해자들에게 맞서기 위한 기회를 마련하거나 집단분위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 학생들은 능력을 보여 공동체의 인정을 받거나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내에서 평판을 올리거나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또한 이 학생들 중 피해자였던 학생들은 정서적으로 연대하기를 통해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한다. 학교폭력 상황을 불의의 상황으로 규정된 일반학생들 중에는 법과 제도를 활용해 학교문화를 정상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이렇듯 이런 학생들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인간성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 준다.

## V. 결론 및 제언

### 연구의 함의: 이론적 함의

본 연구가 가지는 이론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다수연구가 취하고 있는 기계적 인과 관계를 탈피해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생활세계인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의미를 살펴 보려 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및 방관자의 개인 심리사회적 특성이나 보호요인, 위험요인, 부모의 경험, 가해학생들의 집단결속 형성과정, 관계적 폭력, 지역사회 공간영향, 피해극복 과정등 학교폭력과 관련된 제한된 범위에 대해 주의를 기울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생활세계라는 맥락을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것을 들여다보려 하였다. 이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자가 청소년의 생활세계를 보기 위해 질적연구를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특정집단을 연구하려 할때 쉽게 측정될 수 없는 변수나 침묵 속에 있는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데 있었다(Creswell, 2018). 이를 통해 생활세계의 청소년 모습을 뚜렷하게 포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를 계기로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에 대해 심층적이며 전체적인 면을 보기 위한 접근이 활성화 되리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자료가 확장되고 축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기존 질적연구들에서 개별적 대상들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방식보다 더 깊이있게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경험을 들여다 보려 했다. 이를 위해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등 학교폭력 관련 청소년들을 전부 포함한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자가 서론에서 밝혔듯 학교폭력은 '집단역동'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연관된 대상자들을 포함해야 이 부분을 명징하게 볼 수 있다 생각했다. 특히 대상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학교폭력을 바라보고 인식하였는지 알아보려 했고 이를 근거로 그들의 생활세계인 학교현장에서 경험한 심층의미를 드러내려 했다. 지금까지의 기존연구보다 이런 점에서 발전적인 접근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이해에 대한 구조적이고 집단역동적 관점에서의 자료를 제공해 주리라 기대한다.

## V. 결론 및 제언

### 연구의 함의: 이론적 함의

셋째,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해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을 보여 주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수행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 '현상학적 자기평가방법'을 사용해 연구를 진행했다. 이 방법론은 현상학적 접근방법 중에서도 현상학의 원리에 철저하게 토대를 두면서 본질을 밝히는 환원절차가 구체적이다. 현상학적 자기평가방법의 이런 장점 덕분에 현상학에서 추구하는 본질적 의미를 구현하는데 용이했다고 본다. 현상학 연구는 보통 Heidegger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Van-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과 Husserl의 판단증지와 자유변경을 기반으로 Giorgi가 창시한 기술적 현상학 연구로 양분된다. 현상학 연구자들은 대부분 이 두가지 방법론에 편중되어 연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몇개의 특정 연구방법에 치우친 연구 분위기에서 참신한 방법론을 사용했다 볼 수 있다. 게다가 이 현상학적 자기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의 과정을 자세히 서술함으로써 추후 이 방법론을 사용해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가이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V. 결론 및 제언

### 연구의 함의: 정책적·실천적 함의

첫째, 본 연구결과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생활세계인 학교현장은 우열투쟁의 장이자 피라미드식의 위계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폭력적인 경쟁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청소년의 인권과 복지권이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이 기획되고 실현될 필요성이 있다.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고 유지할 기본권이다. 이 인권에 근거해 청소년은 인간적으로 성장하고 발달시킬 권리를 구현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이에 부응해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을 견인하며 조성할 의무가 있다. 인간적 존엄성을 토대로 삶의 위험으로부터 생존과 자율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복지권이라(윤찬영, 2005)한다. 경쟁 제일주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시스템도 은밀하게 학교폭력을 방치하는 정도라면 학생들은 생존과 자율성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인권과 더불어 복지권을 학교현장에 적용시킬 정책과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학교의 경쟁우선주의 가치는 학교의 폭력적 위계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며 이런 구조가 작동되는 한,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재생산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우리나라 사회의 경쟁승배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입시교육위주의 학교시스템이 청소년의 전인적 영역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폭력과 관련된 왜곡된 인식을 교정하고 완화하기 위해 학교사회복지사등을 활용한 정기적 인식개선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 또래관계는 학교폭력이 문화로 자리잡은 학교현장에서 폭력적 위계구조 하에 놓이게 되며 피해자는 이 구조내에서 하층계급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논의 부분에서도 고민하였는데 이 폭력적 위계구조는 우리나라 사회의 폭력 수용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의 폭력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학교내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등이 실제적으로 이와 관련된 인식 개선교육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는 홀로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할 정도로 학교폭력 상황에서 철저히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교내에서 피해자를 위해 또래를 활용한 지지체계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볼 수 있다. 왜냐면 피해자는 학급내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청소년기의 특성상 친구에 대한 갈망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또래상담 및 또래조정등의 또래활동 운영에 대한 적극적 방안이 시도된 적이 있었다(관계합동부처, 2014).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런 정체성 회복과 관련해 친구간의 지지 및 의사소통, 신뢰감등이 의미있는 영향(임유진, 2001; 백동현, 2007)을 준다고 보고되었다. 이를 토대로 학교폭력 예방 및 개입프로그램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상처는 장기간 지속될 정도로 심각하기에 그들의 외상적 트라우마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이 적절히 취해야 한다.

## V. 결론 및 제언

### 연구의 함의: 정책적·실천적 함의

셋째, 본 연구결과에서 방관자들은 생존전략으로 무장된 존재들로, 가해자들은 미성숙한 공동체내의 포식자로 밝혀졌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는 그 위치가 고정적이지 않고 전환될 수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관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학교폭력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지를 할 수 없는 처지때문에 방관행위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점에서 논의에서도 언급했듯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학교현장에서의 일상에 적절히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사회복지사나 전문상담가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들은 기존 학교시스템에 얽매이지 않고 학업 이외의 전반적인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구성원들의 집단역동에서 발생하는 과정이란 관점에서 방관자의 기능이나 중요성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교육을 학교사회복지사 및 청소년상담사 등에 의해 활성화 시킬 필요성도 제기된다. 교사는 학생의 일상에 쉽게 개입할 수 있으며 그들의 학교폭력인식에 따라 학생들의 학급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생존만을 위해 움직이던 방관자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만들어지리라 본다.

넷째, 본 연구결과에서는 학교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존엄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들의 학교폭력 문화에 대한 저항 심리를 알아보는 것은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이 추후 주체성을 회복하는 작업과 관련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 결과에서는 이들이 학교공동체 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서 인정받는 존재가 되는 방식을 통해 이런 저항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해 학교내외의 성숙한 의식을 가진 학생과 시민조직들의 연계등도 실천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만하다. 또한 이런 접근에 동의하는 시민들과 학교 구성원들이 많아져서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등이 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종혁(2007)이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불런티어 소집단을 조직화해 사례연구한 것은 이런 관점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 V. 결론 및 제언

##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 제언

이 절(節)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서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기술하려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대상자들과 관련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학교폭력 경험유형이 한정적이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의 집단역동적 과정과 구조적 관점을 들여다 보기 위한 목적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어떤 청소년은 가해자 경험만 있고 다른 청소년은 가해, 피해, 방관 경험을 다 겪기도 했다. 혹은 방관자 경험만 한 청소년도 있었다. 이렇듯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의 가해, 피해, 방관을 모두 경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전체적 경험을 들여다 보기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두번째, 연구 대상자들의 지역과 학년에 있어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중2~고2까지의 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은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학년별로 중1과 고3은 빠져 있고 지역적으로 전라도, 강원도 및 제주도 청소년은 제외되어 있다.

중1은 초등학교에서 상급학교로 바로 진학한 학년이기 때문에 새로운 학교시스템 적응과 또래집단과의 관계성에서 주목할만하다. 그리고 고3은 대학진학과 직결된 학년이어서 학교폭력이 이 시기에는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 혹은 질이나 양적인 면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연구해볼 만한 학년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학년과 관련하여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로 학교폭력의 빈도나 강도는 차이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이후로 학교폭력은 지역사회와 깊은 관련성을 드러낸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런 점에서 전라도, 강원도 및 제주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제외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이 후속연구로 진행될 수 있으리라 본다. 먼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 부분에서 살펴보면 각 학년별 학교폭력 경험 연구를 수행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각 학년이 가지는 생애주기별 의미점도 도출될 수 있을 것이고 고유의 특징적인 부분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지역별 청소년의 학교폭력 연구도 시도해 볼 만하다 사료된다. 각 지역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문화가 있을 것이고 그 문화가 폭력문화와 어느정도 연결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경기도 청소년의 학교폭력이나, 전라도 청소년의 학교폭력, 제주도 청소년의 학교폭력 같은 연구도 진행되면 상당히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흥미롭게 본 결과가 있다. 바로 학교폭력 피해자가 공동체의 인정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부분이었다. 사회복지적으로 회복탄력성과도 연관이 있으며 임파워먼트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사회학적으로도 미드나 하버마스, 악셀호넧트의 상호인정을 통한 정체성 주체와도 연결이 된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공동체의 인정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연구도 시도해 볼만하다고 본다. 이 연구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의 회복과 관련된 자료가 제공되리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김준호·박정신·김은경(1996).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 - 276.

김준호 외 (2002). 가족의 구조·기능과 청소년 비행. **한국청소년연구**, 35(2), 225-267.

김지민·노승래(2015).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와 Wee클래스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0, 95-120.

김지영·정영숙(2011). 중학생들의 학교폭력 가해행동 제반방지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청소년학연구**, 18(8), 141-159.

김진이(201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관련법의 사회복지적 성격 고찰**. 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진호(2009).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의 인간관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장근·임계영(2010).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법학연구**, 38, 173-198.

김철기(2014). 학교폭력에 대한 인정 이론적 이해와 정책적 함의 탐색. **교육종합연구**, 12(2), 133-155.

김현동(2018). **학교폭력 경험이 청소년의 생활양식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형섭(2012).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제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현주(2003). **집단따돌림에서의 동조집단 유형과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현진(2013). 인식된 교내폭력 환경과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된 학교풍도가 학습경험과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탐색. **교육학연구**, 53(1), 167-193.

김희봉(2012). 후설의 생활세계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철학과 현상학연구**, 51, 25-60.

이근호(2007).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현상학. **교육인류학연구**, 10(2), 41-64.

이남인(2006). **후설의 현상학과 현대철학**. 서울:폴빛미디어.

이미영(2015).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유형화 연구**.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상관(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성식(2001). 가정에서의 체벌과 청소년폭력비행. **교정연구**, 12, 235-261.

이신애·김희정(2013). 여중생의 집단따돌림 방관경험과 해결방안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6), 507-538.

이유나·조운오(2015). 학교 폭력 피해 및 가해의 중첩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2(2), 75-98.

이종혁(2006). 학교폭력행위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공인행정학회보**, 15(4), 245-265.

이경민(2020).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운영방향. **형사정책**, 32(1), 159-191.

이진아(2019). **한일 학교폭력 실태비교연구**. 경상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진숙(2012). **근거이론으로 접근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교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창훈·권요한(2015). 일반학교 교사가 인식한 장애학생 학교폭력 유형과 원인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7(3), 41-63.

이준재·박근주(2000).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지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68-80.

이혜정(2017). **학교폭력에서 여자청소년의 방관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희연(2013). 학교폭력 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지. **학교사회복지**, 25, 275-309.

임병우 외(2018). **사회조사방법론**. 창지사.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6). **학교폭력,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 한울림.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5). **2014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최성재(2005). **사회조사방법론**. 나남출판.

최수미·김동일(2010). 따돌림 권어 유형에 따른 사회적 기술과 공격적 행동성향. **청소년상담연구**, 18(1), 59-72.

최종희(2007).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불린더어 소집단 조직화 사례연구. **청소년학연구**, 14(3), 159-188.

\_\_\_\_\_(2009). **질적연구방법론:현상학적 자기평가론**. 과주:양서원.

\_\_\_\_\_(2014).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질적평가 활용방안 : 현상학적 자기평가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1), 1-28.

한국교육개발원(1998). **학생의 왕따(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교육개발원.

한유경 외(202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대책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30(3), 25-56.

황의갑(2017). **지역사회요인의 학교폭력피해에 대한 공간적 영향력 분석**.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황정훈(2014). 학교폭력 처리과정에 대한 교사경험 분석. **교사교육연구**, 53(2), 289-303.

황진아(2010).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참고문헌

### 2. 국외문헌

- Agamben, J.(2008). **호모-사케르: 주권 권력과 벗겨벗은 생명**, 박진우 역, 서울:세물결.
- Adhia et al. (2022). Trends in secondary school practices related to violence prevention, 2012–2018. *Journal of school health*, 92(9), 822–887.
- Aster, R. et al. (1977). Perceptions of school violence as a problem and reports of violent events, *Social Work*, 42(1), 55–68.
- Bourdieu, P.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Cambridge: Harvard UP.
- \_\_\_\_\_(1994). *Language and Symbolic Power*. Cambridge: Polity.
- Brame et al.(2001).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physical aggression from school entry to late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2(2), 503–512.
- Burns,N.(1989). Standards for Qualitative Research. *Nursing Science Quarterly*, 2(1), 44–52.
- Copeland et al.(2013). Adult psychiatric outcomes of bullying and being bullied by pee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JAMA psychiatry*, 70(4), 419–426.
- Creswell, J. W.(2018). **질적연구방법론 : 다섯가지 접근**, 조홍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역, 서울 : 학지사.
- Espelage et al (2003). Examination of peer-group contextual effects on aggression during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4(1), 205–220.
- Gini, G. (2007). Who Is Blameworthy? :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Bullying.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8(1), 77–89.
- Giorgi, A.(2004). *Advanced Workshop on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서울 : 한국질적연구센터.
- Henggeler et al. (1998). *Multi-systemic treatment of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Honneth, A. (2012). **인경부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문성훈·이현재 역, 서울의 책.
- Hugh-Jones & Smith(1999). Self-reports of short- and long-term effects of bullying on children who stammer.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9(2), 141–158.
- Husserl, E.(1962). *Ideas : General Introduction to Pure Phenomenology*. Translated by W.R.Boyce Gibson. London: Collier.
- \_\_\_\_\_(1970). *Logical Investigations*. J. N. Finley, Trans. New Humanities Press.
- Kutash, S. B. (1978). Psychoanalytic theories of aggression, in S. B. Kutash and L. B. Schlestinger (ed.), *Violence: Perspectives on murder and aggress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Lester et al.(2013).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olescent victimization: Predictors and outcomes. *Social Influence*, 8, 107–130.
- Lincoln, Y.,& Guba E.(1985). *NaturalisticInquiry*. BeverlyHills. CA:Sage.
- May, T.(1993). *Social Research, Buckingham*. Philadelphia:Open University Press.
- Menesini et al (2003). Enhancing children's responsibility to take action against bullying: Evaluation of a befriending intervention in Italian middle schools. *Aggressive Behavior*, 29(1), 1–14.
- Merleau-Ponty, M. (2005). *Phenomenology of Perception*. New York : Humanities Press.
- Moustakas, C. (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s, CA:Sage.
- Mulrine, C. (1996). *Survey course on the effect of violence in educational settings*. Montana University Press.
- Nesdale & Scarlett(2004). Effects of group and contextual factors on pre-adolescent children's attitudes to school bullying.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 428–434.
- O'Connell et al. (1999). Peer involvement in bullying: insights and challenges for intervention. *Journal of Adolescence*, 22(4), 437–52.
- OECD(2004). *OECD Country Not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the republic of Korea*.
- Olthof & Goossens(2008). Bullying and the need to belong: Early adolescents' bullying-related behavior and the acceptance they desire and receive from particular classmates. *Social Development*, 17(1), 24–46.
- Olweus(1992). Victimization by peers: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315–341.
- Olweus(1994). Journal of Child Psychiatry.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35, 171–190.
- Salmivalli, C.(2010). Bullying and the peer group: A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5, 112–120.
- Schwartz et al.(1997). The early socialization of aggressive victims of bullying. *Child Development*, 68, 665–675.
- Schutz, A.(1973). *Collected Papers, Vol 1:Phenomenology and Social Science*. The Hague:Martinus Nijhoff.
- Smith, P. (2003). *Violence in schools: The response in Europe*. London: Routledge.

[토론문]

## 「청소년의 학교폭력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자기평가방법 연구」에 대한 토론

### - ‘학교폭력’의 압축된 언어 살려내기

정진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 대표)

- 폭력은 대체로 언어를 압축시킨다. 권력의 영향 아래 듣기 좋고 현수막에 내 걸기 좋은 압축된 언어는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집단화된 ‘전체주의’가 다양성을 부정하고 하나의 이념과 이상만을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압축된 언어를 지닌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고유성은 집단의 명칭 안에 칩거하여 굳이 개인을 드러내지 않고 통념상 어느 집단에 속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그렇게 프레스(press)기에 눌러 제 의미를 발현하지 못하고 있다.
- 이러한 이유로 본 논고의 토론 주제인 ‘학교폭력’은 흔하디흔한 단어가 되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도 교사에게 학교폭력을 의뢰하고, 기성세대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학교 현실을 개탄해 마지 않는다. 일찍이 학교폭력 문제는 당사자들의 삶이 빠진 ‘관청의 언어’로 압축되어왔다. 피해자, 가해자, 방관자, 그리고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는 중요하지 않았다. 누구를 중심으로 실행되는가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은 폭력의

주체들이 빠진 행정 처리 과정에 불과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북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드래그(drag)하여 일선 담당 교사들을 교육청으로 소집한 다음 수 회에 걸쳐 연수를 진행하고 나면 행정 처리와 함께 어떻게 현 상황을 ‘갈등 봉합’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 내용물과 포장지까지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일찍이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아돌프 아이히만(Otto Adolf Eichmann)에게서 관청의 언어가 갖는 말의 무능, 사유의 무능을 보며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을 언급했다. 유대인 학살의 전쟁범죄자가 지닌 극악무도함은 모든 이들이 평범하다고 여기는 일상에 숨어 있었다. 지금은 우리의 일상 생활을 해체할 시간이다. 분열이 아닌 해체이다.

- ‘학교폭력’이라는 압축된 언어를 해체하기 위한 작업은 박범기 박사의 논고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 첫째, 논고는 Husserl의 ‘지평’과 ‘지향성’이라는 생활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을 파악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단일한 사건이라기보다 폭력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세계로서의 학교 현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간의 학문을 주도해 온 두 가지 커다란 패러다임은 논리 경험주의적 접근을 근거로 한 실증주의적 패러다임과 인본주의에 근거한 자연주의적 패러다임이라 말할 수 있다. 오랜 기간 많은 학문 분야에서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을 채택하여 제 학문이 ‘과학’으로 인정받기 위해 양적인 측면을 강조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은 인간을 양적인 구성단위로 바라봄으로써 인간이 지닌 의미를 숫자로 단순화하여 그 역동을 살피는데 제한적이었다.
  - 둘째, 이 때문에 그의 논고는 이러한 숫자적 한계를 현상학적 연구로 뛰어넘으려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질적 연구로써 현상학 연구자들은 인간의 복잡성의 구성 요소인 지각과 판단에 의해 경험되는 현상을 연구한다. 경험이 가진 개인적 의미를 파악하는 기술(description)을 통하여 대상자들의 실재인 생활세계 안에서 그들을 만나고, 대상자들을 알게 되며, 도울 방안을 제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셋째, 논고는 대상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상위 카테고리인 ‘구별짓기를 강요하는 학교’, ‘폭력의 트라이앵글’, ‘돌림노래 같은 가해자와 피해자’,

‘공동체 내에서 존중 획득하기’로 나타나고 있다고 정리한다. 학교폭력의 현상을 잘 훑아볼 수 있는 주제들이다. 이는 현상학적 환원 단계들을 거치면서 생성된 것들로 ‘의미구조 명료화하기’까지를 거쳐 도출된 내용임을 원문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한 측면의 당사자가 아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각각 당사자들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반영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상호작용의 역동을 측정하는 방법이 학급 공동체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의 현장을 정리하고 있는 논고에 대하여 몇 가지 토론을 위한 질문을 하고자 한다.

- 논고에서 학교폭력의 현장은 우열투쟁의 장이자 피라미드식 위계구도로 되어 있다는 표현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내용을 차지한다. covid-19가 해제된 4기 학교폭력 실태조사 이후(2022년~ )에는 거의 대부분 학급 공동체가 폭력적 하위문화에 복속되어 개별적인 폭력 성향이 집단적인 폭력성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23년 학교폭력실태조사-언어폭력(37.1%), 신체폭력(17.3%), 집단따돌림(15.1%) 순). 폭력적 하위문화에 대한 교육적 접근 방식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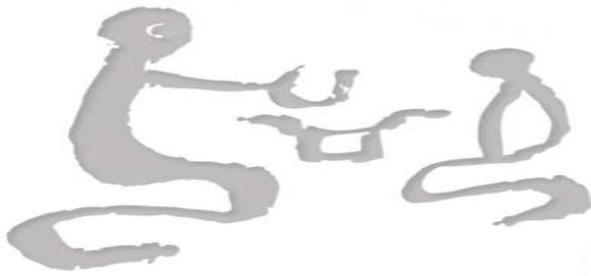
- 피해자는 폭력적 하층민에 속한다는 언급은 상당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피해자뿐 아니라 학급 구성원들이 지닌 도덕적 상해(moral injury)는 구성원들에게 소속감을 상실하게 하고 학교생활을 의미 없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저절로 피해자 되기’에 저항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장애 진단명에 대한 고찰 : 장애 진단명의 오류와 그 대안

강 은 희

(강은희 사회성발달연구소)

## 장애 진단명에 대한 고찰 (장애 진단명의 오류와 그 대안)



2024.6.14

강 은 희  
(강은희 사회성 발달 연구소)



### I. 장애 진단명 오류의 실태



강은희 사회성 발달 연구소

# I. 장애 진단명 오류의 실태

- 1 — 24시간 돌봄실태 설문조사
- 2 — 2022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 3 — 개별 사례 - s군

## 1. 24시간 돌봄실태 설문조사 (2023. 8)

- 목적: 최 중증 발달장애인 기준 수립 및 발달장애 특성에 맞는 돌봄 체계 구축
- 수행기관: 경기복지재단과 한국갤럽
- 최 중증 발달장애인 기준:
  -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통칭한 발달장애인 중
  -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 의사소통 등 극심한 발달상의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인원

# 1. 24시간 돌봄실태 설문조사 (2023. 8)

## 문제점

- 발달장애인과 최 중증장애인을 동일시함.
- 발달장애라는 용어의 애매모호함을 그대로 사용.
- 장애인복지법에서 발달장애를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분리 (2021년).
- 여전히 발달장애, 발달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혼란 가중.

# 2. 2022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 수행기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조사 배경
  - 1) 발달장애인의 규모와 비중 매년 빠르게 증가
    - => 29세 이하 저 연령대 전체 장애인의 과반수
  - 2) 중증장애인으로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위한 정확한 실태와 욕구 파악이 필요
  - 3) 기존 통계조사의 한계
    -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제반 환경요인을 반영하지 못함.
    - 특히 당사자의 의사와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없었음.

## 2. 2022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결과

(만 15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대상)

### 1) 의사소통

#### ① 듣기: 80.7%가 다른 사람의 말 이해

- 다른 사람의 말을 두 문장 이상의 수준으로 제시해도 이해하는 경우 53.9%
- 간단한 문장 수준으로 제시해야 하는 경우는 26.8%

#### ② 말하기: 84%가 자신의 의사표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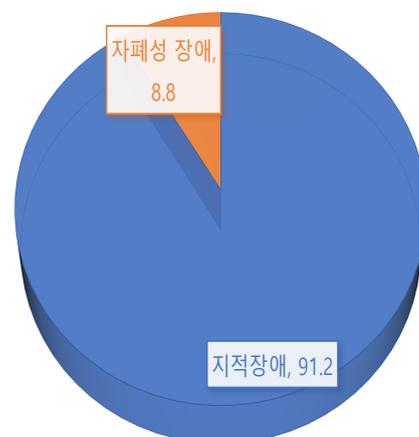
- 두 단어 이상을 사용하는 표현이나 문장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57.3%,
-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18.9%,
- 불명료한 소리를 내어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7.8%

## 2. 2022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결과

(만 15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대상)

### 2) 발달장애인 장애 유형

- 지적장애 91.2%
- 자폐성장애 8.8%



#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 비교

지적장애(장애인복지법)	자폐성장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전적인 보호의 대상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한 대상

## 2. 2022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결과 분석

### 지적 장애인 장애 진단명 오류 가능성 제기

- 실태조사 결과, 전체 발달장애인 중 **91.2%**가 전적인 보호의 대상인 지적장애로 분류.
- 그러나 이들 중 **82.8%**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지적장애 진단명의 오류 가능성 제기.

### 3. 진단명 오류의 개별 사례 - S 군

사례 S군은 1993년생으로 지적장애 진단명으로 살아옴.

초, 중등은 통합교육으로 일반학교를 졸업하고, 고등과정은 분리교육으로 특수학교를 졸업.

2023년 중증장애인 권리형 일자리에 취업.

그 취업현장에서 지적장애인의 행동이라고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일으킴.

### 3. S 군의 행동 문제

#### 1 출퇴근 시간 지키지 않기

직장의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출·퇴근하기

#### 2 출근 거부 및 집에서 문제행동

출근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출근거부.

집에서 많은 일들 벌이기.

(방문 부수기, 세탁기 속에 팬티 바람으로 들어가 있기)

#### 3 반복적인 병원/장례식장 방문

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엄마 찾기.(반복)

#### 4 화장실 사용 방해

출근을 하는 경우에도 사무실이 아니라 화장실에 들어가서 3시간 이상 나오지 않는 등 다른 사람들의 화장실 사용을 방해함.

#### 5 출근하지 않고 귀가지연

출근하는 척하고 나가서 밤늦도록 귀가지지 않기.

### 3. S 군의 현재 모습

#### 일상생활 능력

- 2024년 현재 화폐의 사용이 가능.
- 혼자서 교통기관(버스, 지하철, 국철 등)을 이용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귀가함.

#### 의사소통 특성

- 일상의 대화가 가능.
- 동문 서답하기, 엉뚱한 말하기, 못들은 척하기, 모르는 척 하기 등의 자폐성장장애인의 행동 특성을 보임.

#### 진단명 의심

- S 군의 능력과 행동 특성은 지적장애인에게서는 볼 수 없는 모습임.
- 앞으로의 일상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받기 위해서는 **S 군의 지적장애 진단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확인 필요.**

### 3. S 군 장애진단명 오류 및 재 진단 과정

1

장기간 행동 특성 관찰  
(2015~2024)

S 군은 자폐성장장애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행동 패턴을 보임.

2

진단명 오류 확인

S 군의 장애명의 오류를 의심하는 전문가로서의 의견 제시.  
부모의 동의 의사 확인.

3

의료적 재 진단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진단 (여의도 성모병원, 신촌 세브란스)

4

등록 장애명 변경 추진

S 군 어머니는 2023년 12월 장애명의 오류를 바로 잡고자 국민연금공단에 재 진단 절차를 개시.

5

장애명 변경 불가 판정

**지적장애 중증으로 재 판정 (2024년 3월)**

### 3. S 군 지적장애 중증 재 진단 결과 분석

- 1 국민연금공단의 담당 인력들의 각각의 장애명의 의미에 대한 몰이해
- 2 장애명이 앞으로 살아갈 장애 당사자와 가족의 삶에 끼칠 영향력에 대해 무관심
- 3 크게 대별되는 두 장애를 하나의 장애 범주에 집어넣음으로써  
장애인복지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원인을 제공
- 4 서비스제공 인력들은 시간이 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큰 어려움에 매몰되어 있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

## II . 정확한 장애 진단을 위한 대안



## II. 정확한 장애 진단을 위한 대안

- 1 — 장애진단의 현실
- 2 — 장애진단명의 의미와 기능
- 3 — 장애진단명의 오류와 문제점
- 4 — 제언(개선방향)

### 1. 장애 진단의 현실

- 장애 진단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함.
-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에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 사회적으로 장애를 거부하는 분위기로 인해 장애 특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더라도 장애 등록은 강제조항이 아님.
- 검사 상에 드러나지 않는 장애의 특성에 대한 부분까지의 접근을 위해서는 치밀한 관찰 등 임상적 과정이 필요함.

## 2. 장애 진단명의 의미와 기능

- 장애 진단명은 서비스 제공의 기준이 된다.
- 장애 특성에 맞는 장애명으로 진단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장애인의 치료, 교육, 복지는 장애 진단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 진단서가 첨부될 때 비로소 제도권 내에서의 서비스의 대상이 된다.

## 3. 장애 진단명의 오류의 문제점

1

- 장애 당사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방해하여
- 당사자에게 필요한 교육, 치료 서비스 파악 어려움.
  - 교육적, 치료적 서비스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2

- 부정적인 사회 인식으로 인한 정확한 진단 유보로
- 자폐성장애 당사자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 증폭.
  - 자폐성장애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 지속으로  
정확한 진단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 반복.

## 4. 제언 (개선방향)

발달장애라는 명칭(통칭)의 사용 지양.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각각에 대한 바른 이해를 기본으로 하는 임상적 진단과정의 개발이 시급.

인간 이해의 한 부분으로써 장애인을 바르게 진단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며 지속적으로 노력 요함.

진단명의 오류는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방해한다.

# 참고문헌

- 24시간 돌봄실태 설문조사, 경기복지재단& 한국갤럽(2023. 8)
- 2022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2.5.15)
- 자폐성장애 아동의 사회적 기능 향상 개입에 대한 자문화기술지(강은희,2022)

[토론문]

## 「장애 진단명에 대한 고찰」에 대한 토론

### 조 형 범

(이음 크리에이티브 선임연구원,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 발제자의 발표문에서는 장애 진단명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장애 진단명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활발하지 못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적극 동의하는 바이며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발제문 전문이 아닌 축약된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토대로 토론문을 작성하고 있기에 발제자의 의도나 논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아래와 같은 토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 발표문에서는 발달장애 진단명이 모호하며 포괄적으로 발달장애로 통칭하는 현재의 상황이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단명의 오류가 진단 절차와 과정에서의 오류인지,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각 절차상의 사람의 역할과 능력의 문제인지, 현재 법적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진단명 오류로 인해 장애인에게 부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임상적 진단 방법의 구체적인 사례와 그 효과에 대한 해외 사례나 구체적인 예가 있었다면 발표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 선진국의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관찰, 다학제적 접근, 표준화된 검사 도구의 활용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장애 진단명 오류를 줄이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또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발표문에서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각각에 대한 바른 이해를 기본으로 하는 임상적 진단 과정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와 관련 기관이 장애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어떠한 조치 또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애 진단의 표준화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 재정적 지원 확대, 장애 진단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시급한 조치 및 정책적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관련된 국내외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발제자의 연구는 장애 진단명 오류의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장애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장애인을 위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사회적 논의를 이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기대합니다.

제2부 워크숍

---

# 연구윤리강화 워크숍 (Workshop)



# 1.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교육



# 연구윤리강화워크숍

##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김근면

(한국융합인문학회 연구윤리위원장 /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목차

01 IRB 소개

02 IRB 역할

03 심의대상

04 심의절차

05 심의종류

06 심의결과



#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04 제정, 2005 시행]에 의해 배아 연구기관, 유전자 은행, 유전자 치료기관 등에 한해 IRB 설치운영 하도록 제정
- 2013년 인간대상과 인체유래물연구까지 확대 적용
- 2013년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출범(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기본 초점  
연구진실성- 연구수행 / IRB 연구대상보호

## <기본원칙>



1. 인간대상의 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2. 배아 :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
3. 인체유래물 :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4. 유전정보: 인체유래물을 분석하여 얻은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



5. 개인식별정보 : 연구대상자와 배아, 난자, 정자 또는 인체 유래물의 기증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개인정보 :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
7. 익명화 : 개인식별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식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기관의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하는 것



## <기본원칙>

1. 인권과 복지우선
2. 자율성 존중, 자발적 동의
3. 연구자의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보호
4. 연구대상자의 안전 고려
5. 취약한 환경 대상자 보호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을 위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국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1.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자 (이하 '인간대상연구자')가 소속된 교육, 연구기관, 병원 등에 설치 운영
  2.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자(이하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소속된 교육, 연구기관, 병원 등에 설치 운영
  3. 배아연구기관, 배아생성의료기관, 체세포복제배아 등 연구기관 등에서 설치 운영
- \* 각 기관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각 기관의 표준운영지침에 따름

# IRB의 역할



## <심의기능>

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2.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3.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5.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기타 활동 및 필요사항>

1.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2.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3.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 수립
4.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5.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에 그 기관위원회를 등록
6. 기관위원회의 기능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3. 심의대상



- 심의대상 :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 인간대상연구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 주로 인문사회과학 영역의 연구가 이에 해당함 (참여관찰, 설문조사, 심리학 실험 조사, 취약계층 연구 등)
-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
-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해 심의가 요청되는 연구

### 3. 심의대상



- 일반화할 수 있는 지식을 발전시키거나 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연구개발, 시험, 평가를 포함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 연구의 목적 및 분석방법 등 연구 내용 제시된 연구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즉,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즉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즉, 연구대상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심의면제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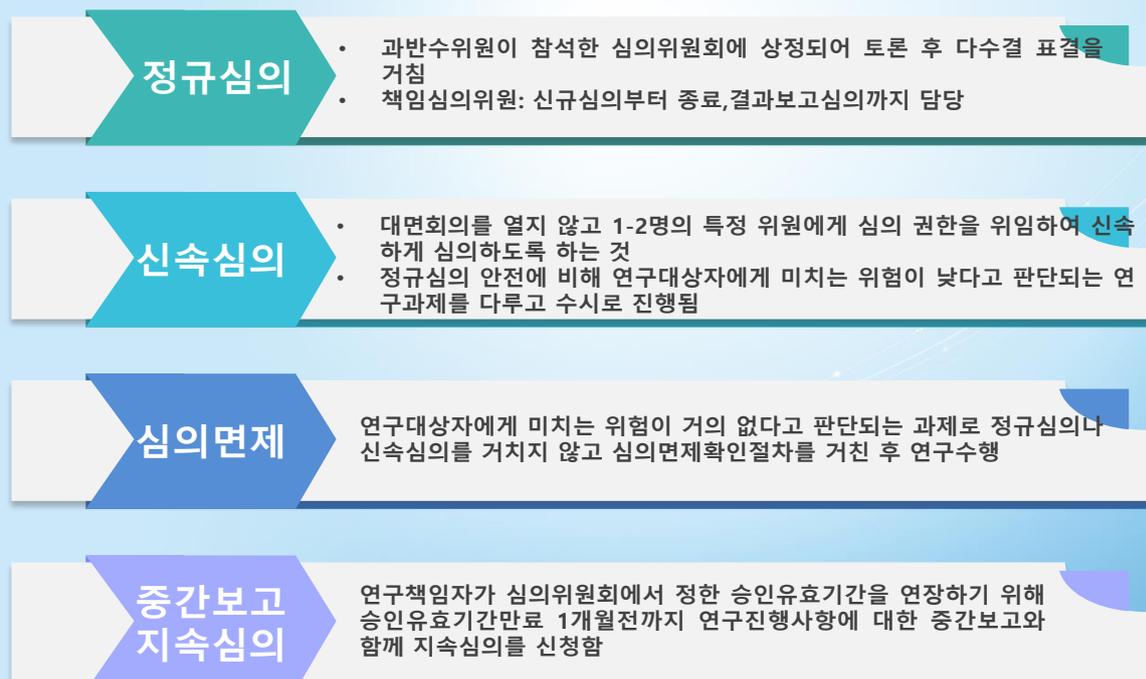


- 연구대상자와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하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이거나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 중
  - ① 약물투여와 혈액채취 등 침습적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
  - ② 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 ③ 식품위생법에 따라 판매가 허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하여 맛이나 질을 평가하는 연구
  - ④ 화장품 법에 따라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 ⑤ 연구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 ⑥ 연구대상자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 4. 심의절차



## 5. 심의종류



## 5. 심의종류



### 계획변경

연구책임자는 승인된 연구계획서를 준수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기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따른 계획 변경이 필요함

### 이상반응 미준수보고

이상반응, 의학적 사건, 승인된 계획 미준수(연구대상자 수 등...)

### 종료보고

종료 후 6개월 이내 연구수행사항 보고

## 심의서류



### 1. 심의의뢰서

### 2. 연구계획서

: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실시기관명 및 주소, 연구지원기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성명, 직명, 연구기관, 연구대상자(선정/제외요건), 예상연구대상자 수와 산출근거, 연구대상자모집, 연구대상자 동의, 연구방법, 관찰항목, 효과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안정성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자료분석과 통계적 방법. 예측 부작용 및 주의사항과 조치, 중지 및 탈락기준, 연구대상자 안전대책 및 개인정보보호대책

### 3. 연구설명문 및 동의서

: 연구배경과 목적, 연구방법, 연구참여기간, 연구참여도중 중도탈락, 부작용 및 위험요소, 연구참여에 따른 이익, 참여하지 않을 시 불이익,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 4. 연구윤리교육 이수증, 증례기록서/관찰일지/연구노트/설문지

### 5. 필요시 모집공고

## 6. 심의결과



- 1. 승인:** 제출된 연구계획서 또는 보고서 등 자료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 2. 수정 후 승인:** 제출된 연구계획서 또는 보고서 등 자료에서 일부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수정 요청 사항이 연구대상자등의 보호나 수행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은 경우 (수정 사항은 전문간사가 확인한다.)
- 3. 수정 후 신속심의:** 제출된 연구계획서 또는 보고서 등 자료에서 중요한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수정을 전제로 연구의 수행이 가능한 경우 (수정 사항의 적절성 여부는 해당심의를 검토한 책임심의위원이 재심의)
- 4. 보완:** 제출된 연구계획서 또는 보고서 등 자료에 연구대상자 보호 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를 위한 자료보완 또는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자료보완 또는 수정의 적절성 여부는 정규회의에 상정하여 재심의)



- 5. 반려:** 제출된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의결과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해당 연구의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 경우 동일한 제목과 내용으로는 접수될 수 없음)
- 6. 중지:** 기 승인된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보호와 생명윤리 및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어 연구의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 경우 정규회의 또는 임시회의를 통해 가능하나,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최대 2주 내 일시중지를 요청한 후 심의할 수 있음)
- 7. 보류:** 의결에 필요한 정보 부족 또는 중대한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판단을 보류하는 경우(이 경우 해당 안건은 보류를 결정한 심의위원회 다음 회의에 확인 사항이 보고되고 심의되어야 함)



## 2.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1)



## 2.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2)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
lundy98@kci님 반갑습니다. [로그아웃](#)

유사도 검사방법 안내  
MANUAL
원문 파일 변환 요청  
REQUEST
파일 업로드  
UPLOAD
유사도 결과  
RESULT
서비스  
이용 약관

### 유사도 검사 목록 (파일별)

**\* 유의사항**  
KCI 문헌 유사도 검사에서 나타나는 유사도 수치는 단순한 자동검사 결과이므로 문헌 간 유사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직접 검사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검사명 클릭 시 각각의 유사도 검사 상세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검사명	미입력
비교 범위	[KCI논문] [학술대회 논문]
검사 설정	유사율 기준 [5%필], 인용문장 [포함], 출처표시문장 [포함], 목차/참고문헌 [제외]
평균 유사율	12%
등록 파일 수	1
검사완료 파일 수	1
검사불가 파일 수	0
검사 일자	2024.03.11 00:37:47
유사도 검사 상태	검사완료

[중립성과 다운로드](#)

비밀
어떤 드 페이지
유사도

### 3. 한국연구재단 KCI 인용정보검색 및 <KCI 인용지수> 안내 (1)

**KCI 통합검색**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HOME > 인용 정보 검색 > 학술지 인용 정보

**학술지 인용 정보**

검색 항목 전체 : 사회적, 발행기관 구분 : 학회, 대학부설연구소, 일반기관 (3건)

※ KCI 인용정보는 2004년 이후의 논문에 대한 피인용연령(총 피인용 횟수 및 H지수)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연구자 인용정보 해석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CI 데이터 범위) 2004년부터 현재까지 발행된 재단등록(후보) 학술지 논문  
 ※ WOS-KCI 통합 영향력지수는 WOS에 등재된 학술지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기준 연도 2022 KCI IF (2년) 내림차순 검색

인용지수 계산일 : 2023-07-31

No.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대분류	KCI IF (2년)	KCI IF (5년)	중심성지수 (3년)	역사성지수	자기인용 비율 (2년)	WOS-KCI 통합 IF (2년)
1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사단법인 사회학기업학회 사단법인 사회학기업연구회	사회과학	2.39	2.39	2.115	0.23	7.14	-
2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 소	복합학	1.48	1.63	1.496	0.54	9.64	-
3	사회적질연구	한국인문사회학회	복합학	1.46	1.04	1.457	0.33	19.51	-

**KCI 통합검색**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HOME > 정보마당 > 공지사항

**정보마당**

공지사항

FAQ  
Q&A  
자료실  
자유게시판  
이용자 요구사항  
오류신고  
학술표준분류 수요 접수 안내

KCI 기관등록 문의  
**042.869.6674~5**

**공지사항**

**제목 『KCI 2022 인용지수』 제공 안내**  
구분:공통 | 조선희() | 2023-07-31 | 조회수:1,930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학술데이터분석팀입니다.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및 논문에 대한 인용정보를 제공하는 KCI에서  
『KCI 2022 인용지수』를 산출하여 불일치 같이 제공하였으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KCI 2022 인용지수』에서는 논문별 FWC(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지수를 신규로 산출하여 제공합니다.  
※ FWC 지수는 같은 출판연도 주저분야, 논문 형태에 따라 인용을 측정하여 정규화한 인용지수(〔불일치〕인용지수 설명 참조)

『KCI 2022 인용지수』는 KCI 홈페이지 [인용정보검색 > 학술지 인용정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나,  
확인 후 궁금하신 사항은 이메일(kciadmin@nrf.re.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용지수 활용 시 유의사항**  
- 2020년 또는 2021년 발행 논문 수가 0건인 학술지는 인용지수 산출 대상에서 제외  
- 2022년 발행 논문이 0건 또는 2019년~2021년 발행 논문의 피인용 수가 0건이면 중심성지수 산출 대상에서 제외

# 3. 한국연구재단 KCI 인용정보검색 및 <KCI 인용지수> 안내 (2)

**인용보고서** 한국연구재단연구 인용정보 분석시스템

2017 ~ 년 ~ 2024 ~ 년

저지별 논문 수

연도별 논문 수

연도별 인용 수

논문 목록

- KCI 8배 핵심학역 자기평가방법의 분석방법에 관한 소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심층인터뷰에 대한 현상과정을 중심으로  
박보경 | 한국인문사회학연구 | 사회학연구 | pp.1-21 | 2024.03 | 최갑학 > 학제연구 | 1회 인용 횟수: 0
- KCI 8배 임공근로 정책안의 긍정적 대안관계 탐색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의 변형다중매개효과 분석  
박지선 | 한국인문사회학연구 | 사회학연구 | pp.25-51 | 2024.03 | 최갑학 > 학제연구 | 1회 인용 횟수: 0
- KCI 8배 당면제도주요로 본 한국 복지국가의 변형: 김재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론 중심으로  
박보경 | 한국인문사회학연구 | 사회학연구 | pp.53-91 | 2024.03 | 최갑학 > 학제연구 | 1회 인용 횟수: 0

## KCI 인용지수 설명

### 01.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특정기간동안 한 학술지에 수록된 하나의 논문이 다른 논문에 인용된 평균 횟수로 동일 분야 저널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 평가하는 방법을 제공

$$\text{영향력 지수 (IF)} = \frac{\text{학술지의 논문이 인용된 총 횟수}}{\text{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수}}$$

ex) journal "A"의 IF구하기

2020, 2021년에 출판된 "A"의 논문들이 2022년에 출판된 논문들에서 인용된 횟수	2020년 출판된 논문 중 2022년에 인용된 수 = 100 2021년 출판된 논문 중 2022년에 인용된 수 = 110
2020, 2021년에 출판된 "A"의 논문 수	2020년 출판된 논문 수 = 90 2021년 출판된 논문 수 = 95
계 산	$\frac{100+110}{90+95} = \frac{210}{185} = 1.135$

### 02. KCI+WoS 통합 영향력 지수(KCI+WoS Impact Factor)

특정기간동안 한 학술지에 수록된 하나의 논문이 국내 KCI와 국외 WoS(Web of Science) 논문에서 인용된 평균 횟수로서, 국내외적 인용도를 종합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제공 (**WoS 출처 학술지에 한하여 제공**)

$$\text{KCI+WoS 영향력 지수 (IF)} = \frac{(\text{학술지의 논문이 KCI에서 인용된 총 횟수} + \text{WoS에서 인용된 총 횟수}) - (\text{KCI와 WoS 에서 중복하여 인용된 횟수})}{\text{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수}}$$

ex) journal "A"의 KCI+WoS IF구하기

2020, 2021년에 출판된 "A"의 논문들이 2022년에 출판된 KCI 와 WoS 논문들에서 인용된 횟수	2020년, 2021년 출판된 논문 중 2022년에 KCI 에서 인용된 수 = 90 2020년, 2021년 출판된 논문 중 2022년에 WoS 에서 인용된 수 = 30 KCI 논문이면서 동시에 WoS 논문에 중복 인용된 수 = 15
2020, 2021년에 출판된 "A"의 논문 수	2020년 출판된 논문 수 = 90 2021년 출판된 논문 수 = 95
계 산	$\frac{90+30-15}{90+95} = \frac{105}{185} = 0.567$



## 한국인문사회질학회 2024 상반기 학술대회

The 2024 First Half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on Humanities & Social Quality

---

2024년 6월 13일 인쇄

2024년 6월 14일 발행

(1648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90  
국제사이버대학교 영상문화학부 송시형교수실 내  
**한국인문사회질학회 운영위원회**

전화: 031-229-6254

이메일: [kasq2017@naver.com](mailto:kasq2017@naver.com)

홈페이지: <http://www.socialquality.kr>

---